2017년 한국선교신학회

제1차 정기학술대회

주제: 국가와 교회

일시: 2017년 2월 25일(토) 12:00-16:00
장소: 한소망교회(담임목사: 류영모)
주소: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983(야당동 486-7)
전화: 031)8071-6004
인터넷 주소: http://www.hansomang.or.kr

한국선교신학회

www.ksoms.org

2017년 제1차 정기학술대회 순서

❖ 학회 일정

일시: 2017년 2월 25일(토)(12:00-16:00)
장소: 한소망교회 (담임목사: 류영모)

❖ 진행 순서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3:20 환영 및 교회소개

< 논문 발표 >

- 13:20 ~ 14:00 논문 발표1
- 14:00 ~ 14:40 논문 발표2
- 14:40 ~ 15:20 질의응답과 토론

< 연구윤리 교육 안내 >

- 15:20 ~15:50 - 연구윤리에 대한 소개와 안내

<광고 및 폐회>

- 15:50 ~ 16:00 광고 및 폐회

❖ 발표 논문

주제: 국가와 교회

시간	발표자	발표논문
발표1	임희모 교수	**한국의 교회와 국가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 제자도 선교**
발표2	김성건 교수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 현실과 쟁점**

광 고

1. 오늘 학회를 위해 장소와 학회 진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한소망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2017년 제1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해 주신 임희모교수님과 김성건교수님, 좌장을 맡아주신 전석재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제2차 정기학술대회는 4월22일(토) 경동교회에서 모입니다.

3. 출판부 및 편집위원회 소식입니다
   우리학회 학술등재지인 「선교신학」의 피인용지수가 31개 동종 학회지들 중 3위(2015년 기준/최근 2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동규 전 편집장님과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모든 학회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4. 「선교신학」제45집이 출간되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6집 원고를 2017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www.ksoms.org)를 통해서 받습니다.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 학회지 출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재비와 관련하여 회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 참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선교신학」투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김칠성 편집장(skync1005@gmail.com 010-9385-906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투고	심사	발행
「선교신학」 46집	2017년 3월 1-31일	2017년 4월 10-25일	2017년 5월 31일
「선교신학」 47집	2017년 6월 1-30일	2017년 7월 10-25일	2017년 8월 31일
「선교신학」 48집	2017년 9월 1-30일	2017년 10월 10-25일	2017년 11월 30일

5. 2017년 연락처를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에서 알리는 정기적인 공지 메일이나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정기묵 총무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특별히 연락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묵총무 (gimook02@naver.com 010-9082-1193)

❖ 2017년 선교신학회 회비 납부 및 후원금 현황 (2017년 2월11일 현재)

- 5만원 납부하신 회원
  강보영, 구자용, 김광성, 김원곤, 김은수, 김종성, 김지인, 김칠성, 김형길
  변창욱, 양권석, 양옥희, 유근재, 이병옥, 이은경, 임용선, 전석재, 정승현
  최동규, 허성업, 황병배(2016.10), 한국일, 김혜경, 이후천, 최성일, 하충엽,
  정기묵, 안 신(2016.11) 이선이, 김정두, 한강희(2016.12), 신경규, 김남식, 김미선,
  이종우, 김성건(2017.1)(36명)

- 3만원 납부하신 회원
  김여종, 노희자, 이철규(2016.10), 곽춘기(2016.11), 홍믿음, 장민재(6명)

- 10만원 납부하신 회원
  황흥렬, 권오훈, 박영환, 안승오, 박창현(2016.10), 장훈태(2016.11), 김아영(2016.12)(7명)

- 20만원 납부하신 회원: 손윤탁(1명)

- 30만원 납부하신 회원: 김상근(1명)

- 특별회비 30만원 : 황흥렬 회장

- 회비는 1년에 정회원(박사 이상) 5만원, 준회원(석사이상, 선교사), 학생회원(석사과정 중)1만5천원이며, **국민은행 917701-01-141120 정기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차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목차

주제: 국가와 교회

❖ 좌장 전석재 교수 (서울신대)

❖ 발표 1 ---------- 7

한국의 교회와 국가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 제자도 선교

임희모 교수 (한일장신대)

❖ 발표 2 ---------- 35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 현실과 쟁점

김성건 교수 (서원대)

❖ 발표 1

임희모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일어과 (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학석사(M.Div.)
미국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문학석사(M.A.R)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기독교윤리 전공, 신학석사(M.Th.)
독일 Erlangen대학교 선교학 및 에큐메닉스전공/신학박사(Dr.Theol.)
한일장신대학교 명예 교수

[발표1] **한국의 교회와 국가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 제자도 선교**

임희모(한일장신대, 선교학)

I. 서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한 303명의 무고한 국민의 사망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복지를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국가가 헌법적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고 침묵을 강요하여 소수자들의 기득권과 정권 유지에 몰입하였다. 더 나가 일국의 대통령이 사적으로 비선조직을 가동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과 부패와 불신과 억압의 혼돈 속으로 국가를 빠뜨렸다.

이에 대하여 2016년 10월 이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 심판이 목하 진행 중이다. 일련의 이러한 국가적 재난과 정치적 탄핵은 일차적으로 이들을 떠받치고 있는 권력기관들과 정부 관료들에 대한 심판이다. 여기에는 이들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신교 신도들에 대한 심판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번 탄핵을 당하는 정권에 부역한 개신교의 정치 목사들과 평신도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히 박사모와 더불어 탄핵기각을 주도하는 개신교 세력은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더나가 악한 국가권력을 방관한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간접적 방조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능력한 정권을 비판하고 이번 촛불 광장 집회에 참여하여 정의로운 정치과정과 민주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는 개신교 세력도 적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가와 교회'의 관계 연구는 법적 차원이나 윤리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글은 한국인이 수행해야 할 국가개혁 과제에 교회(그리스도인들)가 어떻게 참여할지를 선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글은 국가나 국가권력 및 영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고 이러한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메시아적 교회/그리스도인의 직업적 의무와 일상 생활적 참여를 선교로 이해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글은 먼저 로마서 13:1-7절에 진술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해석사를 분석하고, 서구 기독교권의 정교관계 역사와 한국에서 진행된 국가-교회 관계의 발전을 분석한다. 그리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정의와 평화와 생명살림의 한국 (더나가 미래적 평화통일의 한국)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 선교를 수행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글은 하나님의 선교사인 나사렛 예수를 일상적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 메시아 선교사로 이해한다. 본 필자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각 개념이 갖는 의미를 혼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우리는 예수 메시아의 제자로서 스승을 따르는 제자도 선교를 실행하는 메시아적 인간이다. 우리는 한국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메시아를 일상 삶에서 행동화하는 제자도 선교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국가라는 세속적 과정과 예수의 메시아적 신앙을 실천하는 제자도가 만날 때 필연적으로 메시아적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고난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본 글은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행위로 드러내는 국가 건설에 예수 메시아의 제자로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적 선교로 정치적 삶을 기술한다. 그러나 본 글은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큰 틀에서 큰 개념들을 대략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추후 보다 자세한 진술이 필요함을 느낀다.

II. 신약성경에 나타난 국가-교회 관계: 로마서 13장 1-7절 중심

1. 신약성경과 국가-교회 관계: 4가지 유형

신약성경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진술한 본문들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우선권을 진술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다. 롬13:1-7절은 국가의 우선권을 강조한 듯이 보이지만 재해석이 필요하다, 딤전2:2절은 통치자들과 권력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벧전2:13-17절과 딛3:1절은 국가의 우선권을 전제로 개개 그리스도인의 복종을 강조한다.

둘째,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강조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막12:13-17절 (마22:15-22; 눅20:20-26)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고, 요18:28-19:16절은 예수와 빌라도 간의 변론상황을 진술하는데, 정치(빌라도)와 유대교의 분리 상황에서 예수는 빌라도의 판결을 따랐으나 진리(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논쟁이 주된 것은 아니었다.

셋째,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권을 주장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마28:1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을 강조하고, 고전6:2-6절은 세상(국가) 법정보다 교회에서 송사 문제의 해결을 권면하고, 엡1:21-23절은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스도(교회)를 두셨다는 것, 골1:16절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넷째, 국가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박해를 가할 때 교회는 저항과 순교적 신앙을 지켜야 한다. 행5:29절은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것, 요계13:1-8절은 사탄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에 대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투쟁을 선언하고 저항하라는 것 등이다.

위의 신약성경 본문들을 분석하면 첫째, 교회와 국가 관계를 진술하는 모든 본문들은 교회나 국가는 공히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둘째, 교회나 그

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하여 긍정 혹은 부정, 또는 제한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전통적으로 두 기관의 관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롬13장 1-7절이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 입장을 보수적, 개혁적 혹은 진보적으로 갖게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글은 롬13:1-7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롬13:1-7절의 본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루츠 폴(Lutz Pohle)의 유형론적 연구[1]를 참고한다.

2. 롬 13:1-7절에 대한 루츠 폴(Lutz Pohle)의 유형론적 견해

루츠 폴은 롬13:1-7절의 본문을 해석하고 연구한 학자들의 논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자들은 롬13:1-7절의 전후 맥락으로서 롬12:1-21절의 권면 내용과 롬13:8-14절의 종말론적 진술을 분석한다. 폴은 본문과 맥락의 관계를 분석하고 4가지 유형을 만들었다.

1) 자연법적-질서신학적 유형

이 유형은 롬13:1-7절의 본문(텍스트)은 콘텍스트로서 롬12:1-21절과 롬13:8-14절의 권면 내용과 관계없이 독자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국가 우선적 본문 해석으로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해석 유형이다.[2] 국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에서 질서를 만들어 선을 권장하는 일을 해야 하고, 교회는 “세계와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적 봉사를 포함하는 영원한 구원을”[3]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넘어 그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의 자리를 차지할 위험을 갖는다.

2) 구체적-카리스마적 유형

이 유형에서 국가의 역할은 악을 막고 악의 공격으로부터 세계와 그리스도인을 보호하는 것이다.[4] 국가는 전체로서가 아니라 국가기관, 관리, 직무를 맡은 자, 기능담당자 등으로 정치적, 공익적 봉사를 위한 존재이다. 교회는 우위를 가지고 국가와 더불어 사회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은사(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세계에서 선교적 증언과 영적 예배(봉사)를 실시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증언과 봉사를 통해서 정치적 사회적 삶을 미래적으로 만들어간다.[5]

3) 종말론적-현실주의적 유형

국가의 활동과 권한의 근거, 내용 및 한계는 “인간의 선한 봉사자로서의 과제”[6]

---

1) 루츠 폴/손규태 역, 그리스도인과 국가: 로마서 13장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2) 상게서, 28-29;
3) 상게서, 165.
4) 상게서, 29-30.
5) 상게서, 170-171.
6) 상게서, 31.

에 있다. 국가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차적으로 선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이차적으로 악을 막고 벌을 주는 것이다. 선과 악에 대한 감시자로서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국가의 권한을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복종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교회는 사랑의 삶과 선을 통해 악을 극복하는 메시지를 선포한다. 국가는 법적으로, 도덕적-내적으로 독자적 권한을 갖지만 한계도 갖는다. 국가의 권위는 정치적 기능담당자들의 카리스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성립된다.[7)]

4) 그리스도 중심적-정치적 유형

국가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배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는다. 국가는 그리스도의 봉사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세상적 매개기관이고 또한 국가의 봉사자적 역할을 가능케 하는 매개 기관이다. 교회는 국가의 근거와 목표에 비하여 우위에 있다. 그리스도 중심적 질서에서 국가는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수단이 된다.[8)] 국가의 과제는 무력으로 강제하고 위협하는 인간들의 저항을 막고 교회가 선포하는 인의에 세상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국가가 경계할 사항은 허약한 국가에게 세계의 횡포가 일어나 불법적 영역이 생기는 것과 국가의 도구성을 잊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교회의 몫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할 위험성이다.[9)]

3. 한국교회 상황에서 발생한 3가지 유형

1) 질서신학적- 반공적 이데올로기 유형

이 유형은 자연법적-질서신학적 유형을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적용한 것인데, 한국의 대부분의 보수적 개신교가 갖는 문자주의적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유형은 창조질서로 국가의 절대적 독자성을 인정하고 여기에 이데올로기적 반공주의를 정치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1945년 이후 미군정 시기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기독교 내부에 극단적 폭력적 반공주의가 형성되어 다른 견해를 가진 자를 무조건 친공, 용공, 종북, 빨갱이로 매도하고 정죄한다.[10)] 이들은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권력자들과 유착하여 다른 견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정죄한다.

2) 질서신학적 - 개인윤리적 유형 혹은 종말론적 - 현실주의적 유형

보수적 기독교권에서 기독교윤리실천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그룹이 있다. 이들은 성경의 권위와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고, 국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하고 국가에 복종을 강조한다. 종교의 영역과 국가의 정치영역을 나눈다. 일상 삶에서 선한 일

---

7) 상게서, 174-175.
8) 상게서, 31-32.
9) 상게서, 184.
10)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을 주도하는 세력의 70-80%는 보수적 기독교인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조기 대선' 가시화, 기독교인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 CBS노컷뉴스, 2017.01.23.). 태극기를 흔드는 이들 보수기독교인들은 촛불집회를 종북들의 집회라고 매도한다.

을 권하고 개혁적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 것을 강조한다. 때에 따라 정치권을 비판하고 저항을 말하기도 한다. 대표적 인물은 홍정길 목사[11]와 손봉호 장로[12] 등이다.

3) 그리스도 중심적 - 에큐메니칼 정치적 유형

그리스도 중심적-정치적 유형을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적용하면 이러한 유형을 만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 내 진보적 에큐메니칼 운동 그룹은 성경에서 해방적 모티브를 발견하고 이를 한국적 상황에서 민중신학으로 발전시켰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선언하고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와 농민들의 인권을 주장하였다. 독재타도와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을 진행하고, 더나가 독재정권이 자행한 국가폭력을 비판하고 폭력적 네트워크로서 반공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13]

III. 국가 - 교회 관계의 역사적 발전

1. 고대와 중세[14]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교회는 세속국가인 로마제국에 대하여 일정한 종말론적 거리를 두고 오랫동안 관직이나 군복무를 거부하고 이교적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황제숭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더욱 강하고 공고해졌다. 이러한 기독교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다른 종교들과 동등하게 여겨졌다. 황제들은 이교적 예배와 관련하여 성권(ius sacrum)을 공권(ius publicum)의 일부로 받아들인 옛로마의 법을 기독교의 성권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식으로 동로마제국은 황제교황주의 (Caesaropapismus)[15]를 확립했고, 반면 서로마제국에서는 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콘스탄틴 황제 이후 국가와 교회를 연합체로 이해하려 했고, 두 명의 수장 즉 황제와 나란히 주교가 하늘과 땅의 권력의 매개자로 이해되었다. 기독교적 황제는[16] 교회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교회를 보호했고 380년 이후 기독교는 유일한 국교로서 공인되었다.

중세에는 교회권과 국가권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논쟁이 지속되었다. 하나님께서

---

11) "홍정길 원로목사, '대통령의 하야 촉구' 호소문: 사악한 세력들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실수 회복의 길" (매일종교신문, 2016/11/22).

12) 강준만, "'기독교의 양심' 손봉호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물과 사상 16: 종교는 영원한 성역인가?, 개마고원, 2000, 71-112.

13) 조현연, 한국현대정치의 악몽: 국가폭력, 책세상, 2000.

14) Konrad Hesse, "Kirche und Staat", in: Roman Herzog et al. (Hg.), Evangelisches Staatlexikon. Band1 (3. neu 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Kreuz Verlag, 1987, 1547.

15) 황제교황주의란 황제(최고통치자)의 지도하에 국가와 교회를 하나의 통일체 즉 영적이고 세속적인 왕국을 하나로 만든 국가교회제도로서 러시아 황제에게 이어졌다.

16)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황제로서 기독교를 자신의 정치를 위하여 이용했다는 주장이 있다. "교회가 자신[콘스탄티누스 황제]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합법화하고 그것을 하느[나]님의 뜻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구실 밑에서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정복하였다."(알리스테어 키/이승식 역, 콘스탄틴 대 그리스도: 이데올로기의 승리, 한국신학연구소, 1988, 245).

교황과 황제에게 각각 교권과 정권을 주었는데, 초기에는 교권이 정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되었지만, 후에 국가의 교회지배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교권과 왕권의 우열 다툼은 양 편에 부정적 결과를 맺었다. 10-12세기에 교회갱신운동이 일어났고, 14세기에 아비뇽 유수와 교황의 실추, 그리고 교회분열이 일어났다.

2. 종교개혁과 근대 시기[17)]

'두 왕국설'을 강조한 루터의 종교개혁은 국가와 교회의 우호관계에서 국가(영주)의 지지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평화회의에서 루터교가 공인되었고 독일어권에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고 뒤이어 독일 개신교권에서 주(州)교회제도가 시작되었다. 종교의 선택은 제후의 몫이고 그 신민은 제후의 종교를 따라야 했다(cuius regio, eius religio). 30년의 종교전쟁 후 1648년 베스트팔리아평화회의를 통하여 i) 각 영토는 가톨릭교, 루터파, 칼빈파 중 하나를 공인종교로 한다. ii) 루터파와 칼빈파의 신자도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예배의 자유를 갖는다. iii) 제후의 결정에 따라 루터파와 칼빈파의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며 이것은 가정에서 예배의 권한만 인정된다. 이 종교평화협약의 효력은 1803년까지 지속되었다. 1803년 제국회의가 열려 세속화(Säkularisation)를 결정하여 제후들에게 자기 영토내의 종교기관들을 세속화할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이전대로 계속하도록 했다.[18)] 한편 특정 지역/영토를 관할한 제후의 종교가 그 지역주민의 종교가 됨에 따라 이것이 발전되어 국교제도가 되었다.

계몽주의 시기 르네상스로부터 연유한 계약사상과 연결하여 국가계약설이 확립되었고 국가의 필연성, 합리성, 국가권력의 절대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1789년 불란서 대혁명 이후 성립된 근대국가의 성격은 법치국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가사상의 변화에 따라 교회와 국가의 관계도 크게 변하였다. 이제 교회는 국가 내의 하나의 단체로 이해되었다. 전통적인 교회와 국가 관계가 끝나고 국가권력이 교회 관계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19)]

근대국가는 법치국가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인정한다. 특히 신앙의 선택과 종교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신앙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서 종교(종파)의 동등성 원칙도 강조되었다. 또한 국가는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었고, 국가와 교회를 외적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더나가 국가와 교회는 그들이 가진 본질적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서 정교분리제도가 확립되었다. 국가는 교회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교회는 어떠한 특권이나 구속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3. 현대의 종교의 자유와 국가-교회 관계 개관[20)]

---

17) 최종고, 국가와 종교, 현대사상사, 1983, 24.

18) R. Kottje und B. Moeller (Hg.), Ökumenische Kirchen Geschichte 3: Neuzeit, Kaiser· Grünewald, 1979, 90-91.

19) 최종고, 상게서, 25-26.

오늘날 법치주의와 주권재민 사상의 발전에 힘입어 전통적인 국가-교회 관계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국가의 성격이나, 교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다름으로 인하여 국가-교회의 정교관계가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유형 안에도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

1) 국가교회 유형

영국이나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전통적인 국교회 제도를 유지하는데, 국왕을 수장으로 한다. 오늘날 국가와 공적 생활의 세속화가 증가하고 전통적인 국가-교회 관계의 기초가 무너져, 교회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는 점차 시대에 맞지 않게 되어 국가나 교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 1945년 이후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권을 약화시키고 교회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상황도 영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한편 국가의 최고통치자가 동시에 교회의 최고직을 맡아 제정일치의 제도(황제교황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동방정교회의 전통을 지닌 그리스와 러시아 등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국가-교회 관계인 cuius regio, eius religio 전통이 오늘날도 느슨하게 이어지고 있다.

2) 국가와 교회의 분리(와 공존) 유형

국가와 교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는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장, 교회의 독립성, 국가와 교회의 협력 등을 강조한다. 국가의 일방적 규제 대신에 콩코르다트나 교회계약 등을 맺어 상호이해와 구속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정치적 발언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934년 나찌 독일의 전체주의적 국가권력에 대하여 개신교의 일부 교회는 바르멘 선언을 통하여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자유교회 형태를 유지하지만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교회도 있다. 또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분리시킨 재세례파 전통의 교회도 있는데, 오늘날 일부 메노나이트는 개혁적 사고로 교회의 정치적 참여를 논의하기도 한다.[21]

비서구 지역인 아시아(한국 포함)나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와 여타 종교에 대하여 국가는 중립을 유지하며 특혜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에 따라 혹은 경우에 따라 국가와 교회가 갈등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들 교회들은 자기들의 고유한 신학 전통을 가지고 있다. 종교개혁의 주류인 루터파는 '두 왕국론'을 통하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나누고, 칼빈파인 개혁교회(장로교회) 전통은 '교회 우위'의 신정국가적 신학을 가지고 있고, 재세례파 전통은 절대적 평화를 주장하며 오늘날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의 전통적 신학들은 여러 상황에 부대끼면서 해석과 적용의 다양성을 가지고 발전되고 있다.

---

20) Konrad Hesse, "Kirche und Staat", 1559-1563; 최종고, 상게서, 26-32.

21) 존 레데콥/배덕만 옮김, 기독교정치학: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답하다, 대장간, 2011; 존 하워드 요더/김기현 옮김,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 KAP, 2005.

3) 전체주의적 국가의 소외와 탄압 유형

국가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형식적으로 규정하지만 무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종교 활동을 통제함으로서 교회를 소외시키는 유형이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국가로서 사회주의권인 중국과 베트남과 라오스, 이의 역사적 유산이 남아 있는 구사회주의권인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에서 교회가 소외당하고 생존에 급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를 넘어 국가로부터 극심한 통제와 탄압을 받고 있다. 이슬람권의 경우 국가와 교회 관계에 있어서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갖지만 정통이슬람 종파 외에 다른 종파나 종교는 대개 억압과 탄압을 받는다.

IV. 한국 상황의 국가-교회 관계

1. 미군정기 국가-교회 관계의 기본구조: 반공주의적 정교 결속과 유착

동양의 전제군주는 국가통치를 위하여 종교를 결합하고 복속시켰다. 동남아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의 앙코르 제국 태동기에 국왕은 신왕(神王, devaraja, god-king)으로 불렸다. 신왕이란 힌두교의 비슈누 신앙과 불교의 보살 신앙을 합친 것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의 구심점을 만들고 체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신왕은 2012년 타계한 시아누크 국왕에게도 붙여졌다.[22] 중국은 역사적으로 유교가 정치지향적 국가이데올로기를 제공한바, 이러한 유교적 영향 속에서 7세기 경교, 12세기를 거쳐 15세기 가톨릭, 1807년 개신교의 유입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황제가 종교를 통제하였다. 오늘날 중국기독교 역시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한국에는 가톨릭이 유교적 국가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유입되었고 이후 많은 순교자적 사상자들을 속출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1886년 가톨릭국가인 불란서와 조선이 맺은 한불조약, 1899년, 1901년 교민조약을 거쳐 1904년 정교분리가 확정되었다.[23] 이것은 불란서 정부가 외교적으로 가톨릭 전교(선교)를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한국에 입국한 개신교선교사들은 개신교는 사회적 정치적 물의를 일으키는 가톨릭과 다른 종교라는 인식을 조선당국에 심어주고, 1901년 정교분리 원칙을 타결하고 '정부와 교회의 상호 불간섭' 등 5개 조항을 발표하였다.[24]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은 선교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오로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05년 1907년 1910년 때맞춰 일제가 대한제국을 침략하여 식민화할 때 교회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개신교선교사들은 일제 식민지 기간 내내 한국교회에 탈정치적 교회생활을 요구하였다. 일부 민족적 기

22) John Marston and Elizabeth Guthrie (eds.), History, Buddhism, and New Religious Movement in Cambodia, Chang Mai: Silkworm Books, 2004, 8; 임희모, 생명봉사적 통전선교: 동·동남아시아 중심, 케노시스, 2011, 153-178.
23) 최종고, 상게서, 215-217.
24) "교회와 정부 사이에 교제할 몇 가지 조건", 그리스도 신문 5권 40호(1901.10.3.).

독교인들은 식민권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만주, 연해주, 중국 본토로 갔고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1운동은 한국교회가 주도한 민족적 저항운동의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보수적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금과옥조로 여긴 한국교회 대부분은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로 인하여 교회적 위기를 맞았을 때 결국 보수적으로 이에 복종하고 배교하고 말았다.

일제가 8월 15일 패망하자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한반도와 한국교회는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었다. 공산주의자 소련 군인들이 8월 11일에 이미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을 앞세워 북한사회주의공화국을 세우기 시작한 반면, 미국 군인들은 이미 일본 총독부에 남한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의뢰하였고, 뒤늦게 9월 8일에 인천에 도착하여 미군정을 시작하였다. 미국선교사들과 한국기독교인들이 3년 동안 미군을 안내하고 한국을 소개하고 친일적 미군의 남한통치에 가담하였다. 미군정 3년간 남북은 갈등하면서 정치적 분단을 고착시켰다. 이 기간 북한 내 반공주의 기독교인들 특히 평안도 월남 기독교인은 공격적, 폭력적, 무력적 반공주의자로서[25] 대거 남하하여 친일적 미군정과 합체하여 남한 내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탄압하였다. 이승만은 친일주의자 친미주의자 및 반공주의자들을 포용하여 1948년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교회에 종교개혁 시기의 cuius regio, eius religio의 한반도 판이 발생하여 북한에는 기독교도연맹이 만들어졌고, 남한에는 친미적 친일적 반공적 기독교가 만들어졌다. 미군정은 한국교회와 결속, 유착하여 친미적 반공적 이승만 정권을 창출하였다.

2. 국가-개신교: 정교 유착의 심화

1) 한국의 정교분리 원칙: 헌법 20조 제1항과 제2항

1948년 7월 17일에 선포된 제헌 헌법의 제12조는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분리된다." 이 조항은 2가지 내용을 강조한다. 첫째,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헌법을 통하여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한국에 미군정을 통하여 알려진 미국식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은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국민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국가와 종교는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헌법이 수없이 개정되었지만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은 변함없이 법조항으로 남아있다. 이렇듯이 정교분리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지켜진 적이 없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부터 지금 대통령인 박근혜에까지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2) 역대 대통령들의 종교편향[26]: 정교유착을 통한 보수개신교와 진보개신교의 갈등

25) 김상태, "1945-1948년 평안도 출신 월남민세력의 분단노선," 박명수, 안교성 외 엮음,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 북코리아, 2014, 198.

26) 여기에서는 백중현, 『대통령과 종교: 종교는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 인물과 사상사, 2014; 박명수, "해방 후 한국 정치의 변화와 다종교 사회 속의 기독교", 박창훈 엮음, 『한국정치와 기독교 공공정책』, 두란

이승만은 한국을 기독교 국가처럼 운영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의 개회를 목사의 기도로 시작하였고 많은 특혜를 개신교에 주었다. 군종제도, 형목제도, 경목제도, 크리스마스공휴일 지정 및 종교불(弗) 계좌 간 이체 등이다. 이승만의 집권기에 개신교는 정권과 유착되어 공개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 정치개입은 1952년, 1956년, 1960년 정·부통령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초대 대통령은 제헌국회가 뽑았지만, 1952년 선거부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기 시작했는데, 이 선거에서 기독교가 가장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한국기독교연합회(KNCC 전신)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어 선거운동을 공개적으로 실시하였다. 물론 이에 따른 특혜가 개신교에 주어졌다. 천주교나 불교 등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박정희는 이승만의 개신교 특혜를 의식하여 처음에는 개신교 규제정책을 실시하여 차별하면서 불교를 우대하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정략적으로 개신교 지도자들을 활용하여 정권을 유지하였는데 3가지 이유가 있었다.[27] 첫째 과거 공산당원 전력이 있었고 더구나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 권력을 획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공을 국시로 삼고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개신교의 철저한 반공주의 신봉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면, 오늘날 문제로 떠오른 박근혜와 친밀한 최태민이 총재로 있는 대한구국선교단이 산하단체로 만든 구국십자군은 목사들로 구성된 전국적 조직으로 준군사훈련을 받았다. 둘째, 군사쿠데타 세력인 박정희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주한미군철수반대를 위하여 개신교 친미주의자들을 이용하였다. 셋째, 노동 탄압과 장기독재를 획책한 박정희에 대하여 반대하고 저항한 인사들을 억압하고 종교인들을 탄압함으로써 악화된 국내외 여론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개신교 보수세력을 이용하였다. 1968년 노동자 선교를 위한 도시산업선교회를 용공으로 억압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였다. 또한 1969년 3선개헌반대, 반독재민주화운동, 유신헌법반대와 긴급조치반대 등 반독재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이들 반대자들과 민주인사들의 상당수가 개신교인들이었다. 이런 와중에 박정희는 보수적 개신교를 동원하여 기도회를 열게 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친미 개신교인들을 보내 반한, 반유신, 종교탄압 여론을 호전시키려 하였다. 정권 측에서 이들 개신교에 준 반대급부와 특혜는 군대를 대상으로 한 전군신자화 운동을 허락하고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전도집회를 열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권력과 개신교의 유착을 통하여 개신교 신자들이 양적으로 많아졌고, 대형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결국, 탐욕스런 박정희 국가권력을 지지하고 야합하여 이로부터 특혜를 얻은 개신교의 보수세력이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한편 산업노동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불의한 정권을 비판하면서 고난 받고 탄압받는 개신교 진보세력(KNCC)이 생겼다. 이때부터 한국의 개신교는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갈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진보적 그룹의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WCC, CCA 등 에큐메니칼 기관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지지하였다.

노 아카데미, 2012, 19-51; 김지방, 『정치교회: 권력에 중독된 한국 기독교 내부 탐사』, 교양인, 2007을 주로 참고하였다.

27) 백중현, 상게서, 78-101.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은 1980년 광주시민을 학살하였다.[28] 이를 비판하는 종교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였다. 광주학살 이후 보수적 개신교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조찬기도회를 열고 지지함으로서 대형전도 집회 허락을 받았고 교인들은 늘고 성장했다. 그러나 불교는 이들을 반대하여 10.27법난을 겪으며 총무원장이 갱신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1982년 개신교인에 의한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 1983년 대구미국문화원 방화사건, 1985년 서울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등으로 반미운동이 불타올랐다. 이들은 광주사태를 일으킨 전두환 군부에게 무력사용을 허락하거나 지원한 미국을 비판한 것이다. 이제 주한미군철수가 논의되고 친미주의와 반공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한편 국가권력은 비판자와 저항자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였는데 1987년 1월 박종철 학생이 고문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개신교인들과 시민들을 반미, 반독재, 민주화, 인권운동에 가세하게 하였다.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 전두환 정권은 국민 앞에 '대통령직선제'를 공약하였다. KNCC를 중심으로 진보적 개신교가 국가권력에 저항하여 정치민주화에 기여하였다.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불교 배경을 가진 노태우 대통령은 통일운동에 집중하였다. 노태우정권 시기 개신교 내부에서 반공과 친미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반미운동과 통일운동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88년 진보적 개신교인들 주축의 KNCC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 문익환 목사의 방북, 임수경 학생의 방북 등이 발생하자, 친미와 반공이 허물어질 위기에 불안을 느낀 보수적 개신교인사들이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국가권력이 관여된바, 국가권력과 보수개신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결합되었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여 이후 통일논의의 기준을 만들었다. 이후 개신교 내부에 보수적 개신교와 진보적 개신교가 단체적 집단적으로 갈라져 갈등하고 서로 적대하였다.

김영삼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기총을 중심으로 개신교가 총동원되었다. 특히 대형교회들이 앞장섰다. 이 당시 문어발식으로 성장한 초대형교회/대형교회들이 재정능력과 전문적 인재들을 통하여 정보를 나누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개신교의 배경을 가진 김영삼 정권은 군승제도를 두는 등 비교적 형평성 있는 종교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검정고시 일자가 부활절과 겹쳐 평일로 잡는 특혜를 개신교에 주기도 하고, 군대 내에서 불교 차별이 일어나 1993년 육군제17사단훼불사건, 1996년 국군중앙교회 과잉경호사건, 1997년 육군특수전학교 인분투척사건 등 3번이나 있었다.

가톨릭교인인 김대중 대통령과 개신교인인 영부인의 종교가 조화를 이루듯이 이 정권은 종교에 대한 형평성을 실천했다. 진보적 개신교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과 지척의 권력 주변에 앉았고, 반면에 보수적 개신교는 한기총의 대형교회들과 몇몇 언론 논객을 중심으로 비판 권력을 형성했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29] 첫째, 공중파

28) 천주교 교인이었지만 광주학살 책임을 지고 백담사에 유배되어 결국 불교에 귀의하였다.
29) 백중현, 상게서, 195-198.

방송이 개신교의 대형교회들의 비리를 폭로했다. 둘째, KNCC 진영의 진보인사들이 입각하고 이에 따라 보수 개신교가 소외감을 느꼈다. 셋째,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을 진행했는데 이는 반공을 신봉하는 보수개신교와 양립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보수언론들이 국가의 정체성 위기를 논하면서 한기총과 연대하여 김대중 정권을 좌파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인권, 노동, 여성, 환경 등 민중교회운동과 기존의 교회성장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국회의 조찬모임도 조찬기도회, 정각회, 가톨릭의원신도회가 조직되었고, 불교와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보수적 개신교에 의하여 타도의 대상이 된 노무현 대통령은 영세를 받은 천주교인이지만 불교에 친화성을 가졌다.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은 보수적 개신교가 사활을 걸고 반발하였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개신교의 근간을 이루는 '반공'을 허무는 일이었고, 사립학교법 개정은 개신교의 재산권을 빼앗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보수적 개신교가 광장과 거리에서 국가보안법폐지 반대를 외치고, 사립학교법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고, 나중에 '미션스쿨의 종교교육'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30] 이러한 일련의 권력 집행이 개신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되자 대형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노무현 정권을 반개신교 정권으로 규정하고 친북반미정권 타도를 외쳤다. 이 때 보수개신교가 독자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독교 정당'[31]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장로가 한기총을 중심한 보수개신교와 뉴라이트전국연합[32]의 전폭적인 선거운동을 통하여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타종교에 배타적인 보수개신교만큼이나 개신교인 편중 인사를 하였고, 정책에서도 불교를 배타적으로 대하여 전국교통지도에 사찰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별에 대하여 불교측이 비판하자 개신교는 국가의 전통문화정책 지원 예산의 70%가 불교로 들어갔다고 역차별을 주장하였다. 2008년 소고기광우병 파동으로 반정부 촛불시위가 가열되자 보수개신교는 대통령 구하기로 촛불반대집회를 열었다. 2011년 이슬람채권법인 스쿠크법의 국회상정에 대하여 보수개신교는 대통령 퇴진까지 언급하며 거세게 반대하였다. 이쯤 되면 보수개신교는 한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된 것이다. 권력과 보수개신교가 결합됨으로서 권력화된 보수개신교의 오만이 하늘을 찔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것이었을까? 보수개신교는 사회적 신뢰의 하락과 더불어 지도력의 세대교체, 전도/선교 방식의 구태, 교세 성장의 둔화 등이 어우러져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살아오면서 가톨릭과 불교와 개신교와 일정한 관련을 가진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 선거에서는 불교권이 소리를 내면서 도운 반면, 보수개신교는 한편으로 한기총을 중심으로 조용히 움직였고 다른 쪽에서 개신교인들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대변인 등 주요직책을 차지하며 도왔다.[33] 박근혜는 당선 후 개신교인을 중용하였다.[34] 그러나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해온 '종교인 과세'와 유엔

30) 이은선,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공공정책", 박창훈 엮음, 상게서, 85-117.
31) 이진구 "한국사회와 종교정당", 신앙과 정치, 통권 제3호(2010.5), 119-149.
32) 최형묵 외 2인, 무례한 자의 크리스마스, 평사리, 2007, 175-197.
33) 백중현, 상게서, 275-276.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은 보수개신교의 반발로 인하여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군종에 여성도 가능하도록 하여 여성군종장교(불교) 1명이 배정된바, 총 14명의 여성군종 배치가 가능해졌다.

3) 역대 대통령 중심의 국가-개신교 관계의 특징

본 글은 과도적 성격을 지닌 장면 내각수반과 최규하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과 개신교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의 분석에서 대통령을 만든 종교, 당선 이후 인사의 편향성, 종교정책과 법령 등을 분석하였다. 국가-개신교 관계에 대한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에서 국가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대통령은 여러 권력장치들을 동원하여 가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한다. 전근대시기 전제군주나 제왕처럼 군림한다.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한 17세기 불란서의 루이 14세가 연상된다.

둘째, 대통령이 가진 종교 혹은 종교성향이 개신교 혹은 개신교 친화력을 가질 때 반공주의적 보수개신교와 결합되거나 유착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등이 대통령일 때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하여 보수개신교가 동원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러 보수개신교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이명박 대통령 퇴진까지 운위하였다.

셋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 10년 동안 진보개신교 인사들이 등용되었고, 보수개신교는 소외를 당하였다.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진보개신교의 반미운동이 성장하여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 최고조에 이르렀고 통일운동이 진행되었다. 반면 반공주의를 신봉하는 보수개신교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질적으로 더 공고해진 반공의 보수개신교는 진보개신교를 용공, 친북, 종북으로 정죄하고, 노무현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였다.

넷째, 보수개신교가 불의한 권력이나 독재 권력과 유착/결합을 유지하며 교회 내 전도와 교회숫자 등을 늘리고, 더나가 목사/장로 등의 개인적 권력이나 명예를 높이는 일에 매진하였다. 반면, 진보개신교는 불의한 권력이나 독재 권력이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거나 반독재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고문 및 학살을 저지를 때 약자들을 편들고 지지하면서 고난을 겪었다.

다섯째, 반공 보수개신교는 대통령직을 누가 수행해도 자기 식의 교회만의 유익을 위하여 국가나 시민사회의 공익적 사업이나 이를 위한 입법 등을 반대했다. 또한 가톨릭이나 불교 등 타종교에 대하여 차별을 부추기거나 편승하였다.

여섯째, 반공주의 보수개신교에 대한 신학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반공 보수개신교가 불의한 정권이나 독재 혹은 인권탄압 정권과 결합하고 유착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불의한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저항하다가 고난당하는 진보개신교인을 친

34)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12명 중 8명, 3실장 모두, 그리고 초대 내각 18명 중 종교인 9명, 그 중 개신교인이 4명이었다. 주로 '사랑의 교회' 인맥을 활용한다(백중현, 상게서, 276-279). 초대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지금 국무총리를 맡고 있다.

공, 용공, 종북으로 정죄하고 억압하고 탄압할 때, 과연 이들 반공 보수개신교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교제해야할까? 여기에 2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반공주의 개신교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남북분단 상황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그리고 원론적으로 순수한 입장에서,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3. 정교관계의 혼란과 새창조: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교회의 정치적 참여

1)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와 법률 위배 행위: 탄핵국면

지금 탄핵정국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로서 사적 개인인 최순실에게 국정의 중요한 결정을 맡겼고 결국 국정농단을 허락하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국가이고, 국가는 바로 짐이고, 짐이 곧 국가'라는 봉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한 것은 아닌지 박근혜의 성장사와 가정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60여 년 전 일제식민지 봉건적 삶에 젖어 제왕적 독재정치를 실시한 박정희의 가부장적 가정 문화에서 성장하고 훈육 받은 박근혜가 제왕적 군림을 하면서 일개 집사 같은 여인에게 권력과 정사를 넘긴 것이다. 그동안 1987년 시민혁명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시기를 거치면서 주권재민사상과 법치적 사회정의가 한국사회의 밑바탕에 편만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함으로써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에 대한 준수와 수호의 책무를 지니고 그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 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35]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헌법 위배 행위이다. i.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 ii.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iii.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보장의무, 시장경제질서, iv.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v. 생명권 보장(세월호희생자들) 등이다. 둘째, 법률 위배 행위이다. i.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ii. 롯데그룹 추가출연금 관련 범죄, iii.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iv.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관련 범죄 등이다.[36]

---

35) PDF 파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2016.12.3. 발의자: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인), 2. (본 필자가 원문에서 일부 내용을 가공했음)

36) 상게서.

2)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제안"

탄핵 이후 국민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정권교체를 넘어, 대통령이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 행위를 가능케 한 제도를 고치고 수정하여 주권재민의 법치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다음은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2017 새 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주제들이다.[37] 공동주최 측은 8가지 부문에서 새롭게 논의하고 집행해야 할 과제들이다.

Ⅰ. 공공적-민주적 국가구조의 재설계
  1)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 2) 검찰, 사법 및 국가기구 개혁, 3) 지방자치,
  4) 언론개혁.
Ⅱ. 외교안보정책의 개혁
  1) 한미동맹과 MD/싸드/한미일군사협력,
  2) 남북관계와 개성공단/핵 이후의 남북관계
Ⅲ. 시민교육의 재설계
  1) 교육거버넌스, 2) 유초중등교육 개혁과 교육복지, 3) 신자유주의 대학파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학체제, 4) 교육노동문제의 해법
Ⅳ. 사회적 차별 극복과 평등인권
  1) 젠더평등사회, 2) 소수자차별, 3) 장애인차별
Ⅴ. 재벌개혁과 공공적 민주경제의 재구축
  1) 재벌개혁/규제/통제, 2) 민영화 저지 및 공공부문개혁, 3) 복지정책,
  4) 보건의료정책
Ⅵ. 환경생태 및 안전사회의 재구축
  1) 원전문제, 2) 대안농업정책, 3) 환경문제
Ⅶ.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
  1) 노동정책 일반, 2) 비정규직 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위한 법적 재검토
Ⅷ. 문화와 여유가 있는 시민 공동체
  1) 새 공화국의 주거환경공간 정책, 2) 새 공화국의 문화적 정체성,
  3) 개인과 독립적 시민의 연대 공동체

3)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설립과 개신교인들의 정치적 참여

'새로운 민주공화국'과 같은 새로운 체제와 질서를 만들려면 개신교는 과거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반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반공적 보수개신교는 자신 중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이익집단이 되어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무뇌적 행동을 했다. 2013년 경북 구미시 등 한국인들 일부가 박정희를 신격화 혹은 반신(半神)으로 여기는 가운데,[38] 개신교 목사와 교회들이 고(故) 박정희 추모예배를 행했다.

37) PDF파일, "2017 새 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심포지엄" (2017년 1월 19일,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
38) "'박정희 신격화' 구미시 왜?", 일요시사 (2016.11.01.).

십자가 대신에 박정희 영정을 걸어놓고 추모예배 드렸는데, 어느 목사는 “한국은 독재해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라는 말을 설교에서 했다.[39] 이번 탄핵정국에서 박근혜는 이러한 류의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에게 구국기도회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다.[40] 보수개신교의 일부 목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반대 집회를 열면서 더 많은 수의 시민들이 참가한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몰기도 했다.[41]

이렇듯이 종북몰이를 해대는 반공적 보수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용서, 화해,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실천하기보다 혹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행하기보다 반공주의를 더 굳게 신봉하고 있다.[42] 이들은 일상 삶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기독교인과 시민들을 친북이나 종북으로 입버릇처럼 쉽게 매도하고 있다.

2015년 종교인구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인은 968만 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19,7%에 이른다.[43] 근래 박근혜 탄핵에 대한 설문응답을 분석하면 ‘박근혜 하야·탄핵’ 여론 42.3%→55.3%→60.4%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보수 성향에서도 ‘자진 사퇴 및 탄핵’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44] 이러한 탄핵찬성 비율을 전체 개신교인 수와 관련시키면 개신교인의 탄핵 찬성인은 약 585만 명이나 된다.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친정부적 맹종을 일삼던 보수개신교 세력이 목하 의미 있는 변화를 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잠정적 ‘새 하늘 새 땅’과 잇댄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에 참여할 개신교인들이 늘어나는 중이다.

V.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예수의 제자도 선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어떻게 예수 메시아의 제자공동체인 한국개신교회가 메시아 예수의 선교사로서 참여할 것인가를 다룬다. 구체적인 역사 현실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구조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상정하고 어떻게 예수제자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도를 실천할 것인가를 다루려고 한다. 이러한 실천적 추진동력구조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 제자도의 선교’라는 말로 표현한다.

1. 하나님 나라와 선교사 예수 메시아

“하나님 나라는 특히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에 대한 메시아적 평화와 정의와 화해의 나라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고 또한 세상 속으로 사람을 보내는 활동파송(tätige Sendung)이다.”[45] 이를 좀 더 설명

39) ‘박정희 추모예배’ 목사 ”한국은 독재해야“, 머니투데이 (2013.10.27.).
40) "박근혜, 대형교회에 자기 지지하는 집회 열어달라 부탁" 보도 파문“, 스토리369 (2016-12-21).
41) ‘박근혜 수호자 자처하는 '애국' 기독교’: '대통령 퇴진' 요구에 맞불 놓는 기독인들, 26일에도 '하야 반대' 집회, 뉴스앤조이(2016.11.21.).
42) 임희모, “남북한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운동으로서의 선교“, 선교와 신학 제35호(2015, 봄), 118-158 특히 150-152.
43)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16년 12월 19일 발표).
44) “박근혜 하야·탄핵’ 여론 42.3%→55.3%→60.4%: 보수 성향에서도 ‘자진 사퇴 및 탄핵’ 의견이 1위”, 리얼미터 (2016년 11월 10일).

하면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예수가 사회적 약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와 화해를 이루는 나라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시고 세상 속으로 메시아적 공동체로서 교회와 메시아적 인간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는 활동적 파송이다.

1) 예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구약성경에서 메시아는 '야훼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고, 메시아를 기억한다는 것은 메시아와 메시아의 구원하는 통치를 희망함을 의미한다.[46]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활동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인간과 제도가 악함으로써 우상숭배와 부패와 타락과 불의를 자행하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보냄을 약속하였다. 메시아의 오심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희망 속에도 남아 있다. 신약성경은 이러한 유대적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서 활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언하고 직접 실현하였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이를 실천한 예수 메시아의 인격과 삶의 관계를 해석학적으로 볼 때, 이 양자(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예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고 성장하였다.

예수 당시 하나님 나라 사상은 대개 5가지로 논의되었다.[47] 출애굽 과정에서의 신정통치적 만인평등사회공동체,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율법적 문자적 실천(바리새파), 성전의식 중심의 국가의 평안과 보전(사두개파), 다윗왕조 회복의 급진적 저항 활동(열심당, 시카리파), 그리고 묵시적 종말론적 새 하늘과 새 땅의 평화(쿰란공동체 에세네파)에 관한 논의가 논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예수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 이해와 실천은 이들과 달랐다.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 나라 활동으로 말씀 선포와 행동을 하였다. 성령 충만하여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에 등극하고, 갈릴리 중심의 하나님 나라 사역과 제자공동체를 조직하고 훈련하여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행해야 할 사랑의 윤리적 삶과 실천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표징으로 치유와 축귀와 이적을 행하고, 농부 지혜자로서 나사렛 예수는 비유와 격언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개방적 공동식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다. 역사적 예수 연구가인 마커스 보그는 예수를 유대교 신비가로 서술하는데, 이 말은 영의 사람, 치병자, 지혜의 교사, 사회적 예언자, 운동의 선구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48] 또한 그는 예수를 기독교메시아로 규정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소피아,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빛, 생명의 빵, 알파와 오메가, 만물의 첫 열매 등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49]

---

45) K. Blaser, "Reich Gottes", in: Karl Müller und Theo Sundermeier (Hg.), Lexikon Missionstheologischer Grundbegriffe, Dietrich Reimer Verlag, 1987, 405.

46) Jürgen Moltmann, Der Weg Jesu Christi: Christologie in messianischen Dimensionen, Chr. Kaisr Verlag München, 1989, 17.

47) 윤철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통전적 예수 그리스도론, 대한기독교서회, 2013, 228-233.

48) 마커스 보그 & 톰 라이트/김준우 역, 예수의 의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92.

예수가 말하고 행한 하나님 나라는 몇 가지로 해석된다. 예수 메시아가 언급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미래적 종말론)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천재이변 등 묵시적 종말론과 관련을 갖기도 한다. 또한 이미 예수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다(실현된 종말론)는 언급도 있다(마2:28; 눅11:20; 눅17:21).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 즉 현재와 미래의 변증법적 종말론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예수의 비유(겨자씨, 누룩, 씨뿌리는자 등), 그리고 연대기적 시간상의 일보다는 개인의 실존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몰트만은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간적, 공간적, 우주적 차원에서 미래를 현재 이곳으로 밀어붙이는 하나님 나라(미래와 현재 속에 있는 역동적 역사변혁적 종말론)로 이해한다.[50]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임으로서 현재의 구시대와 구체제를 변화시켜 역동적으로 새로운 현재를 창조하는 하나님 나라 이해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이해는 사회변혁과 정치변혁 추구의 선교를 가능케 한다.[51] 현재의 불의와 억압, 가난과 질곡 등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살림을 역사적으로 이 자리에서 선취하여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여러 관점을 갖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통전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 전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세상과 역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주의적, 내면적, 영적, 내세적, 미래적, 초월적 이해를 해왔다. 한편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불의와 억압, 착취를 통해 가난을 양산하는 세력과 제도에 대한 저항과 변혁을 일으키는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하나님 나라 즉 양분화된 하나님 나라 개념을 하나로 통전하고 통전적 접근을 마련하여 미래적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수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파송하신 선교사이다. 예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실행한다(마4:1-11; 막1:12-13; 눅4:1-13). 여기에서 예수는 인간이 유혹당할 수 있는 3가지의 근본문제를 놓고 악마와 대결하고 선교사의 신앙적 자질 문제를 극복한다. 첫째, 인간의 본능적 한계에 대한 극복을 질문한다. 40일간의 금식으로 인한 육체적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 가능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실성, 성실성으로 대응한다. 둘째, 종교적 권위와 교만의 문제로 악마와 씨름한다. 이에 대하여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로 답한다. 셋째, 세상의 권력 문제를 예수는 우상숭배 문제로 이해하고 오로지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영광만을 강조한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선교사 자격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선적 선교현장인 갈

49) 상게서, 92-94.
50) J. 몰트만/박봉랑 외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한국신학연구소, 1984, 211-218.
51) Wilbert R. Shenk (ed.), The Transfiguration of Mission: Biblical, Theological & Historical Foundations, Scottdale(PA): Herald Press, 1993, 25-34.

릴리로 파송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는 고향인 나사렛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 선언'(Nazareth Manifesto)을 천명하였다(눅4:16-30).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였다(마4:12-17).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선교현장이 갈릴리 지역임을 예수는 깨달았다. 아시리아에게 침략당하여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중심 농경지. 예수는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인종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인들의 갈릴리 선교현장에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자유, 해방, 평등과 정의, 평화와 생명살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깨우치고, 논의에 참여시키고, 누구에게나 밥상공동체를 개방하여, 밥(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삶의 하나님 나라를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갔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사 예수는 제자들을 부르고 이들을 마을마다 성읍마다 데리고 다니며 현장에서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다(막6:6). 평소 예수의 가르침은 권력을 가진 유대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파나 사두개인이나 열혈당원이나 에세네파가 가르친 내용과는 확실히 달라 능력과 권위가 넘쳐흘렀다. 예수의 가르침에 수많은 청중들이 예수를 따라 모여들었다. 이들 청중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예수에게서 이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무리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누구에게보다 먼저 나누어져야 할 대상이었다.

몰트만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식한다면, 예수에게 3가지 차원의 메시아적 인격이 형성되었음을 알게 된다.[52] 첫째, 예수의 종말론적 인격 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인식된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모든 민족을 위한 사람의 아들로 이해되고 그 인격 안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창조가 시작되고 희망이 일어난다. 둘째, 예수의 신학적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된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의 인격에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 셋째, 예수는 그의 사회적 인격 안에서 인식된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의 형제와 친구로 인식되고 이들과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 공동체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3차원을 지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 나라의 사회변혁성과 관계적 공공성을 실행하는 통전적 인격이기도 하다.

3) 메시아 예수의 성육신적 선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들 사이에 거주하는 인간이 되심의 사건이 일어난바 이를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으로 이해한다(요1:1,14). 이는 선재적 신성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성육신을 초대교회는 예수 메시아의 성육신으로 이해했고 오늘날 성육신은 새로운 선교 모델로 논

52) Jürgen Moltmann, Der Weg Jesu Christi, 157-171.

의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에 의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유대종교문화 속에서 유대인으로 성장하고 유대인과 더불어 살았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메시아 예수는 유대인 농부로서 지혜를 가졌고 일반 유대인들의 마을과 성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행하였다. 이 예수는 당시의 죄인이라고 천대받는 사람들 및 하찮은 사람들과[53] 자신을 동일화하여 세리를 제자로 삼기도 하고 이들과 더불어 열린 공동체 식사를 하였다. 이러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자신을 유대인들과 동일화하고, 또한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천대받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동일화하였다. 메시아 예수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겸손과 자기포기와 자기 비움을 통하여 온전히 섬기는 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더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메시아)가 죄를 짓고 죽을 운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종교문화적 사회적 죄악인 억압과 착취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하기 위하여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으로 성육신하였다. 성육신하심으로서 메시아 예수는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버리고 낮아져서 인간으로 성육신한 예수가 고통을 받고 죽자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여 자리를 높여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빌2:6-11).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인간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더나가 자기희생적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메시아는 성령 안에서 성육신 선교를 통하여 동일화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초월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선교를 수행하였다.

2. 성육신적 메시아공동체와 제자도 선교

1) 선교사 메시아 예수와 제자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포와 증언과 삶을 위하여 메시아 예수는 제자공동체가 필요하였다.

메시아 예수가 의도한 제자도의 기본목표는 제자들이 예수 메시아 자신과 같이 되는 것이었다(눅6:40). 이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는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제자공동체를 세웠다(막3:14-15). 첫째,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 둘째, 세상으로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 셋째, 권능(전권)을 주어 귀신을 내쫓는 선교를 하는 것이다. 좀 더 설명하면 예수는 일상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였는데 제자들과 더불어 먹고 쉬고 자는 등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가르

53) 존 도미닉 크로산/김준우 옮김, 역사적 예수: 지중해 지역의 한 유대인 농부의 생애,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치고,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어 악한 영(귀신)이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선교를 하는 것이다.

마가는 마가복음3:13-6:13의 문학적 구조를 치밀하게 평행화 하였다. 예수의 12제자 선택과 가르침과 파송을 평행형식으로 배치하고 편집하였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54]

A. 예수의 12제자 선택(3:13-19a)
  B. 고향에서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에게 거부당함. 바알세불 논쟁(3:19b-30)
    C. 누가 진정한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인가 (3:31-35)
      D.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 (씨뿌림과 등불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접근, 부정적 접근) (4:1-34)
        E. 풍랑을 잠잠케 하다 (4:35-41)
          (여기 중앙에 2개의 기적을 배치함: 잠잠한 풍랑, 거라사 귀신들)
        E'. 거라사 귀신들을 내쫓다 (5:1-20)
      D'. 야이로와 혈루병 앓는 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사람의 올바른 접근) (5:21-43)
    C'.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을 반복함, 그러나 혈루병 여인에게 보인 긍정적 반응에 반하여, 예수의 혈연적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대조시킴 (5:21-43)
  B'.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배척당함 (6:1-6)
A'. 예수의 12제자 선교 파송(6:7-13)

마가의 편집의도를 따라 살펴보면, ‘A. 예수의 12제자 선택’과 ‘A'. 예수의 12제자 선교 파송’ 사이의 B,C.D.E 및 B',C',D',E'의 내용은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행하고 나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 비유와 이적들과 이야기들이다. 위의 내용들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상 삶에서 가르쳐 숙지하게 하여 세상의 선교 현장으로 제자들을 파송한 것이다.

메시아 예수의 제자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러나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청(calling)에 응하여 예수님과 대면하고 다른 유대적 예언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카리스마를 인격적으로 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거친다(막1:16-20). 이후 제자들은 과거의 생각과 삶과 재산을 내려놓고 가족과 친척, 고향을 떠나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된다. 이렇듯이 예수의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소명의식과 순종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메시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제자도를 실천함으로써 예수의 십자가적 고난과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에의 참여가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

54) Bascom Wallis, Mark's Memory of the Future: A Study in the Art of Theology, N. Richland Hills(TX): BIBAL Press, 1995, 77.

2) 메시아 예수의 성육신: 메시아공동체 선교

메시아 예수의 제자공동체로서 교회는 메시아 예수가 성육신한 공동체이다. 본훼퍼는 기독교와 예수 메시아와 제자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메시아]가 없는 그런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로 남게 되고, 제자도가 없는 그런 기독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메시아]가 없는 기독교이다. 그것은 관념이고 신화이다."[55] 기독교는 예수 메시아가 성육신하여 말씀으로 살아있고 행동적 실천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이다. 예수 메시아를 성육신적으로 따르는 제자도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는 예수 메시아의 기독교가 아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한낱 관념일 뿐이고 허탄한 신화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교회이다. 이러한 교회는 메시아적 교회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눅4:18-19)을 갖는다. 이러한 사명은 구약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강조한 복음 선포 사명의 연장선에 있다. 즉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귀신들린 자들이 자유하고 해방받고 치유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자 교회는 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을 만드는 수탈 체제와 억압 제도에 대한 개혁과 변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몰트만은 이러한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교회를 '출애굽의 공동체'로 이해한다. 교회는 죄에 노예된 백성들을 노예성으로부터 해방하고,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미래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메시아 예수의 고난과 죽음, 이를 부활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인간 구원을 이룬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메시아적 세계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다.[56]

이러한 출애굽 공동체로서 메시아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교회는 현대 현실세계에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세속적 직업을 가졌거나 공직 수행을 하는 기독교인을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메시아적 파송을 하는 것이다. 몰트만에 의하면 세계와 지구에 편만한 영적인 세력이 끼치는 파괴와 죽음에 직면하여 저항하고 희망을 찾고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선교를 메시아적 기독교인이 수행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삶의 과정에서 공동생활과 정치적 삶의 과정 안에서 인권을 그리고 문화적 삶의 과정 안에서 개방된 동일성을 추구하는 선교를 실천해야 한다.[57] 현대의 세속적 삶의 과정 안에서 메시아적 교회는 메시아적 기독교인들을 파송하여 구태에 젖어 파괴와 죽임을 지향하는 현재에 저항하고 현재를 변혁하여 새로운 삶과 생명살림의 미래적 현재를 창조해야[58] 하는 과제를 갖는다.

오늘날 삶의 각 현장으로 평신도 전문가를 파송하여 복음화하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운동이 논의되고 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 하에

---

55)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Chr. Kaiser Verlag München, 1937(13쇄, 1982), 30.
56) J. 몰트만/박봉랑 외 역, 상게서, 91-100.
57) 상게서, 183-211.
58) 1984년 이후 몰트만은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넘어 생태 문제와 창조신학에 집중하여 저서를 출간하고 있다.

소속 평신도들을 교육하고 준비시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여 교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교회운동이다. 어쨌든 이러한 교회운동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의 메시아적 파송을 통하여 저항과 시민불복종 등 사회변혁을 포함한 각종 변혁운동 선교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3) 성육신적 제자도 선교; 개별 그리스도인의 카리스마(은사적) 접근

여기에서는 개인 차원의 메시아적 제자도를 말하고자 한다. 메시아 예수가 사람을 부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선 예수님 자신과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 맺음을 제안한 것이다. 다른 대안적 삶이나 종교적 분파나 새로운 사회조직에 가담하라는 것이 아니다.[59]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는 중 세관을 지나가다가 그 앞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다(마9:9-13). 마태는 세리로서 사회통념상 죄인으로 여겨져 감히 예수에게 다가갈 수 없었지만, "나를 따라 오너라."는 말에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마태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기존사회의 질서를 혁파하는 예수의 메시아적 인격을 개인적으로 접하고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제자도는 개인적으로 스승과 친밀한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수와 관계 맺어진 제자는 전적으로 스승인 예수를 따라 삶으로서 스승처럼 되는 제자도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 증언을 하시고, 권능을 가지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치병치유와 축귀를 행하셨다. 이러한 스승의 모든 사역을 제자는 수행해야 하고 스승처럼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 스승인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고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고, 성령 안에서 순교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할 일이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도를 도전시킨다.[60] 첫째, 진정한 제자도는 모든 분야의 삶에 진리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다(요8:31-32). 둘째, 진정한 제자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요13:34-35). 셋째, 진정한 제자는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갈5:22-26), 새로운 개종자(요4:3-38; 15:16), 공의와 선행(빌1:11; 골1:10),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메시아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이다(요20:21). 진정한 메시아적 제자도는 메시아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 친밀성을 가지고, 타자를 예수님에게로 부르고,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개인적 제자도는 메시아 예수와 인격격 친밀성을 닮아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실천하는 삶이다. 이러한 제자도는 오늘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노력을 통해 일어난다.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한다.

쉐핑(徐舒平, Elisabeth J. Shepping, 1880-1934) 선교사는 메시아 예수를 닮아

59) Michael J. Wilkins, "Disciple, Discipleship", in A. Scott Moreau et al (eds.),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Baker Books, 2000, 278-280.
60) 상게서, 279.

성육신적 선교를 실시하였다.[61] 독일계 미국인으로 여성 간호선교사로서 1912년 한국에 도착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였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으로서, 가난하고 불우한 여성들을 위하여 그들과 똑같이 살았다. 한국여인처럼 된장국과 검정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전도자로, 간호선교사로, 교육선교사로, 그리고 사회구제와 사회개혁자로 삶을 살았다. 당시 동아일보(1934.6.29자)는 불우한 한국여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일인이 되어 인류애를 실천하면서 생명과 청춘과 열정과 재산을 다 바쳤다고 사설에서 헌사를 했다.

메시아적 제자도의 개인적 실천은 국가공직자나 사적인 기업가나 간에 그 직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공적인 가치를 실현할 때 일어난다. 예를 들면, 목하 박근혜 정권의 탄핵국면에서 만약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기독교인으로서 메시아적 제자도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적절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박근혜의 초대 각료 중에서 2명 정도는 사퇴하고 직책을 떠났다.

3. 한국의 국가-교회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 제자도 선교

국가-교회 관계에 대하여 한국교회 상황에서 생성된 3가지 유형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예수 메시아적 제자도 선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1) 질서신학적 이데올로기적 보수개신교 유형

한국의 보수개신교는 한국 헌법이 규정하는바 정교분리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국가-교회 관계에서 보수개신교가 국가와 대통령에 대하여 이기주의적 행태를 심하게 보임으로서 불교나 가톨릭 더나가 진보개신교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어 이기주의적 특권을 누린 개신교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 10년 동안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였다. 이 시기 진보개신교가 권력에 가깝게 지냄으로서 보수개신교는 심하게 권력에 대항하였고 진보개신교에도 적대적이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보수개신교가 사회적 신뢰를 크게 잃었고 교회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가 언론에 터지기 시작하였다. 보수개신교가 갖는 이러한 부정적 사회적 여론으로 인하여 한국개신교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이후 개신교는 사회적 영향력을 잃었고 선교 능력도 잃고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보수개신교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 평화, 생명살림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 메시아의 변혁적 선교와 이를 성육신적으로 오늘날 한국에서 실천해야할 과제를 갖는 제자공동체의 선교를 어떻게 방향 지을 수 있을까?

우선 한국의 보수개신교는 내세적이고 영적인 구원과 교회 내적 생활에 집중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수개신교는 교회 밖의 사회적, 정치적 사건에 대한 선교적 과

61) 임희모, 서서평, 예수를 살다,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5.

제를 논의하기에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 그동안 보수개신교는 신학적으로 무사회성, 무정치성 경향을 강하게 보인 반면 교회성장에 집중하였다. 그러므로 현실적 상황에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 나라 선교를 언급하기가 저어된다. 그리고 정치적 해석을 해야 하는 메시아 예수의 하나님의 선교 역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수개신교회가 메시아적 선교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이해난감한 일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글은 하나님 나라 선교 논리와 무관하게 보수개신교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거리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보수개신교는 특히 다원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종교분리 원칙이 원활하게 작동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원적 종교사회인 한국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종교 특히 불교간 갈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수개신교는 영육 이원론적 신앙관을 배경으로 구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자기들만 구원을 얻은 것으로 오해하여 구원이기주의에 빠져 타종교인들을 무시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극단적 반공주의에 대한 시각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의견을 가진 자에 대하여 용공, 친공, 친북 등으로 형제를 매도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악이다.

넷째, 가난하고 억눌리고 감옥에 던져진 사람/형제가 고난을 받고 억울하고 억압/탄압을 받을 때 이들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은 성경적이다(마태 25장). 그러나 보수개신교는 정치적 행위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몰라라 했고, 침묵을 지켰다.

다섯째, 독재국가가 박정희를 신으로 공경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해 독재와 인권탄압과 살인/폭력을 자행할 때에도 침묵을 지킴으로서 무언의 동조를 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권력에 대하여 우상숭배라는 신앙고백적 저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국가가 민주질서 유지와 공공복지 향상을 기하도록 협력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보수개신교의 이원론적 신앙관이 교회에게 정치영역과 종교영역을 따로 구분하여 교회는 정치에 무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정치참여문제가 심각하다. 오히려 반대로 정치 무관계성을 강조하는 근본주의적 정교분리론자들이 극단적으로 정치참여론자가 된다는 것이다.[62] 역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개신교 장로를 보수개신교인들이 집중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당선시킨 예는 그 하나가 될 것이다. 정치적 이기주의적 신앙 행태가 심각한 것이다. 교회가 올바른 정치의식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2) 종말론적 현실주의적 유형 혹은 질서신학적 개인윤리적 유형

보수개신교와는 달리 개혁적 성향을 지닌 복음주의자들의 정교관계를 검토할 필

62) 백종국,“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신앙과 정치 제3호(2010.5), 91-100.

요가 있다. 이들을 개혁적 복음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보수개신교와 진보개신교로부터 협공을 받을 수 있다. 성경 해석 관점이 근본주의적 입장이라면 이 그룹은 질서신학적-개인윤리적 유형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관에서 국가에 대하여 맹목적 순종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 개인윤리 차원에서 국가공무원 등을 비판하는 정도에서 윤리적 개혁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그룹이 보다 넓은 성경 이해와 좀 더 넓은 해석의 여지를 갖는다면, 이 그룹은 종말론적 현실주의적 유형에 포함할 수 있다.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공공성 있는 국가의 일에 개입하고 간섭을 할 수 있다. 국가권력에 대하여 예언자적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룹의 대부분은 노조운동을 극력 반대한다. 사회적 약자나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구조적 접근보다는 개인윤리적이고 구호적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메시아적 정치변혁 선교에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 그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정한 선거운동 등에 관심을 갖는다.

3) 그리스도 중심적 에큐메니칼 정치적 유형

그리스도의 주권(Lordship)을 강조하면서 1970년대부터 반독재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인권신장 등 민중운동을 통하여 예언자적 비판과 저항을 하였다. 이들은 경제사회개혁과 정치개혁 등 메시아 운동에 참여하여 고난을 받고 감옥에도 갔다. 1980년대에는 평화와 통일운동에도 참여하였다. 독재정권의 억압과 탄압 상황에서도 정의, 평화, 통일 등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고난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진보개신교 그룹은 1990년대 말부터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 10년간 권력 가까이에서 친정권 입장을 가지고 권력을 옹호하였다. 이로 인하여 반공적 보수개신교가 이들에 대하여 반격을 노골적으로 진행하면서 진보개신교는 용공, 친공, 종북, 빨갱이 등으로 정죄 받고 몰매를 맞았다. 이시기 10년 동안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시기 국가-교회 관계는 비교적 양호하여 종교간 갈등이 돋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통일논의나 반공법 폐지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또한 보수개신교 측의 교회이기주의(?) 관점에서 사학개정법 문제가 큰 이슈였다.

4)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첫째, 한국 종교계 전체 차원에서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 둘째, 기독교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셋째, 일반 시민사회에서 제안된 민주적 정치질서와 공공복지 증진 문제, 정교분리 원칙의 덕목으로써 인애, 공평, 정직 등의 검토. 넷째, 한국의 다종교적, 정치적 상황에서 극단적 폭력적 반공주의 문제, 개신교 종교교육과 종교인 세금납부, 그리고 사학법 개정에 따른 종교계의 재산권 문제 등.

VI. 결론

지금 한국은 국가개조를 철저하게 진행해야할 시점에 있다. 군부독재국가로부터 1987년 시민혁명을 통하여 민주적 대통령제를 실시하였으나 청산되지 못한 독재질서가 비선실세를 통하여 국정농단까지 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국가의 구체제를 헐고 하나님 나라의 과정을 만들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울 것인지 국가에 대한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오늘날처럼 변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선교신학적으로 메시아적 선교를 논의할 수 있다. 정치적 메시아의 오심으로 사회정치적, 경제적 과정과 변혁의 선교가 추동될 수 있다. 이처럼 변혁기에 메시아 예수께서 성령으로 한국에 임재하시고 메시아적 변혁적 선교를 수행하신다. 이에 예수의 제자공동체는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메시아적 정의와 평화와 생명살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한국사회는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세우려 한다. 우선 봉건왕조 시대의 군왕과 같은 대통령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적폐를 만들며 독재적 정권에 부역한 권력장치들 즉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질서에 적합시킬 것인가? 이러한 변화와 변혁을 이루고 새 시대와 새로운 삶과 생활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한국교회의 메시아적 제자도 선교가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메시아적 전망에서 한국교회는 메시아적 제자공동체로 그리고 기독교인은 메시아적 인간존재로 역할을 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의, 평화, 생명살림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참고로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가 제안한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하나님 나라, 메시아 예수, 메시아적 제자공동체, 메시아적 그리스도인, 국가와 교회의 분리

Key Words: Kingdom of God, Messiah Jesus, Messianic Discipleship Community, Messianic Christian,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 발표 2

김성건 교수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
연세대학교 사회학(문학석사)
영국 The University of Hull 사회학(사회학 박사)
서원대학교 교수

[발표2]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 현실과 쟁점**

김성건 교수 (서원대, 종교사회학)

1.문제 제기: 현 시점에서 왜 한국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나?
2. 주요 이론 검토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
(1)현황: 해방이후 현재까지
(2)논란: 김진홍 목사, 기독당, 촛불집회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3. 한국 정치의 갈등구조를 기독교적 관점에 기반하여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4. 결론: 한국교회의 올바른 정치참여를 위한 제언

1. 문제 제기: 현 시점에서 왜 한국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나?

2017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은 '최순실 게이트'가 갖다 준 '탄핵'과 '대선'이란 양대 과제를 앞에 놓고서 '촛불'을 앞세운 '진보'와 '애국'을 앞세운 '보수' 세력으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있다. 35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영미 언론의 특파원으로 활동한 마이클 블린(Michael Breen, 2016) 전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은 2016년 12월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한국 민주주의에선 국민이 분노한 신(神)이다'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군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해 법치를 붕괴시킨다. 한국인은 이를 '민심(public sentiment)'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그가 이 글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정부나 입법·사법기관이 대중 정서에 반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됐는데도 폭력과 불상사가 거의 없었던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중집회가 '소통'의 수단이지 법 제도를 지배하는 상황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마이클 블린의 기고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보수 진영의 언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조선일보는 "'분노한 신'과 '허약한 법치'" 라는 제목의 사설(2017년 1월 17일자)에서 "우리 법치는 허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 출발은 권력자들의 법 농단 때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법을 무시해서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책임 없는 대중 정서가 법 위에 올라가면 결국엔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라는 입장을 천명하여 '촛불'을 앞세운 진보 진

영에 경종을 울렸다.

한편, 올 겨울 최강 한파 속에서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1500여개 시민사회 단체 연대체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17년 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함세웅 신부는 박종철 열사 30주기를 맞아 "오늘의 촛불평화혁명은 정치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가 중심이 아닌, 정치인 중심이 아닌 우리 시민과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체가 돼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동아일보, 2017년 1월 14일자). 같은 날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5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도 맞불집회로 이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본 맞불집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들이 사전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다. 수백여 명의 목사들은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기도회를 한 뒤 대형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했다. 이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이 기사를 송고한 뉴시스는 "강추위 속 '재벌개혁·열사추모' 촛불 … 보수, '태극기·십자가 맞불" 이란 제목을 붙였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여름 한국사회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문제가 촉발한 촛불집회를 시발로 해서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계기로 한국 개신교계에서 오랜 난제인 '보수'와 '진보'의 양분 현상이 불행히도 한층 더 벌어지게 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국 개신교계는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 처음부터 사실상 양분된 태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개혁지향적이거나 진보적 신학을 수용하는 숫자로는 소수인 진영에서는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촛불집회를 '시대의 양심' 혹은 '예언자의 목소리'로 치켜세웠다. 반면, 보수적인 초대형교회(mega-church)의 담임목사들은 대체로 촛불집회에 대해서 뚜렷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다수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촛불집회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거나 혹은 동참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착잡하고도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이 촛불집회의 추이를 나름대로 지켜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유의 중심잡기를 시도하는 윤평중 교수(한신대/철학)는 『극단의 시대에 중심잡기』(2008)를 통해서 "촛불의 가장 큰 그림자는 촛불을 인화시킨 출발점인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예단과 공포가 사실과 합리성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뒤, "촛불을 사회적 망동(妄動)으로 규정하는 것도 거친 단순논리지만, 촛불의 아름다움을 물신(物神)의 높이로까지 격상시키는 것도 새로운 우상숭배"라고 말한 바 있다. 필자는 윤평중 교수의 주장이 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성찰을 담고 있다고 공감한다. 이로부터 "내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촛불"을 주제로 내걸고 가열차게 전개되는 촛불집회 현상과 이에 맞서는 박사모의 중요한 세력 중에서 종교인들 중에서 유독 일부 보수 개신교 성직자와 평신도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요즘 집집마다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녀 세대간 현 시국에 대한 인식의 대립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논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주요 이론 검토

(1) 종교와 정치의 관계: 유착, 분리, 창조적 긴장

일반적으로, 종교와 정치 사이의 관계는 유착, 분리, 그리고 창조적 긴장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종교사회학자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 1967)에 따르면, 종교적 가치가 오랫동안 사회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종교제도가 사회제도 특히 정치제도로부터 구조적으로 '분화'(分化)되어 있는 정도에 달려 있다. 종교제도와 정치제도 사이의 긴장의 정도와 형태는 한 사회의 '진보' 능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종교제도와 정치제도의 두 분야가 밀접히 용해(溶解)되어 있는 것은 두 분야 모두에서 '진보'를 방해한다.

한편, 종교제도와 정치제도가 지나치게 '분리'(分離)되어 있는 경우 즉, 종교적으로 가치있는 것과 이 세상의 현실적인 생활 양자를 완전히 분리시킬 것을 강조하는 경우도, 종교가 사회 진보에 기여할 가능성은 똑같이 약화된다. 이런 경우에 종교적 행위는 어떤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진보가 이룩되기에 가장 적합한 듯이 보이는 상황은 '초월적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종교와 '경험적 현실'의 세계인 정치가 '창조적 긴장관계'(creative tension)을 유지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2) 초기 기독교의 성격

종교사회학적 측면에서 현대 기독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초기 기독교의 성격을 밝히는 작업(김성건, 1991: 149-177)을 수행한 결과 필자는 특히 다음 몇 가지 측면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 초기 기독교가 지녔던 독특한 종교적 지향은, 유대교와 비교해 볼 때, 어떤 공동체의 집합적 운명보다는 개인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새롭게 강조한 점이었다.
(나) 초기 기독교회는 사회의 전체 계급에로 놀랍게 빨리 확산되었는데, 그것의 중요한 추진력은 사회적 충동(예: 고아와 과부에 대한 구제) 보다는 '이 세상의 세력을 정복한 힘에 대한 믿음'이었다.
(다) 예수 당시 팔레스틴은 정치·종교적 계시주의가 만연했고 팔레스틴 유대인들은 메시아적 해결을 대망하였지만, 초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경제투쟁운동이 아니었고 또한 예수는 이 같은 해방운동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라) 예수는 구체적인 사회개혁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구약시대 히브리 예언은 사회개혁에 독특한 관심을 나타냈지만, 이것들은 종교적 이유에서 비롯된 관심이었기 때문에 사회개혁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었다.
(마) 예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박한 천국의 도래와 악령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다. 초기 크리스천 공동체 속에 나타났던 두 가지 새로운 태도는 첫째,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대와 둘째,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과거처럼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바) 바울은 기독교운동이 자칫 유대국가 수립을 향한 불가능한 추구에 휘말려들어 해를 입게 될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체제를 경탄하였고,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에서 세상의 권위에 대해 체제 수용적 태도와 함께 굴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은 중간 하층계급이었고, 최하층 천민이 주류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의 실제 상황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현격한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초기 기독교 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로부터 필자는 개인구원을 사회구원보다 강조하는 보수적 신학자들의 논거를 발견하였다. 한편, 동시에 필자는 개인구원보다 사회구원을 더 강조하는 진보적 신학자들은 그들의 논지를 뒷받침할 때면 언제나 구약의 예언서를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필자가 초기 기독교의 성격 중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점은 기독교 역시 다른 세계 종교들처럼 세속 이데올로기들과는 구별되는 그 자체로서 고유한 '종교적' 차원을 처음부터 뚜렷이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로부터 필자는 복합적 사회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실참여를 둘러싸고 기독교 내의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3)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좋은 정치'[1)]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John Stott, 2006: 33)의 뛰어난 안목을 따라, 먼저 '기독교와 정치' (Christianity and politics)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 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 지나치게 조심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정치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소명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에 깊숙이 참여하는 크리스천에게는 정치 참여의 한계와 '복음을 정치화'(politicizing of the gospel)하는 것의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들의 소명의 경계를 밝혀주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주제이다. 교회사를 통해서

1) 이 부분은 필자의 선행연구(김성건, 2012a)의 1장을 요약한 것임.

볼 때, 이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를 놓고서 합의보다는 불일치가 한층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는 현대 정치에서도 기독교 우파와 기독교 좌파 사이에 불일치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기독교계에는 우파, 좌파, 그리고 무정부주의 이상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세 진영은 구약 및 신약 성서의 구절 중 특정 구절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각각의 정치적 견해를 수립 혹은 정당화하고 있다. 주류 보수 신학자들과 기독교 우파는 로마서 13장 1절-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주된 도구로 국가를 성화(聖化)시켰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국가를 지지해야만 하고 또한 요청받게 되면 칼을 휘둘러야만 한다고 해석한다. 반면에 기독교 좌파는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특히 2장 44절-45절)을 근거로 이상적 사회는 기독교 사회주의 혹은 기독교 공산주의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다음으로 기독교 무정부주의 기초로서 가장 중요한 성서의 구절은 산상수훈(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이다. 그로부터 기독교 무정부주의는 폭력과 저항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한다.

이렇듯 기독교 내부에서 오늘날 정치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현실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관점에서 '좋은 정치'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아무래도 해당 크리스천 개인의 주관적 편견이나 가치, 이념, 관점 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종종 논쟁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는 우선 정치에 관한 정의를 제시하고, 기독교 관점에서 '좋은 정치'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사회변화를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서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간단히 밝혀 보기로 한다.

필자는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을 따라 '정치'(政治, politics)란 "한 사회의 (물질과 자원, 권력 등) 제반 가치에 대한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정치란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정의한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좋은 정치'(good politics)란 아무래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장 10절)는 구절이 말하듯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가이다.

일반적으로, 신학적 '보수' 진영은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갖는다. 그로부터 사회 변혁보다는 개인과 가족을 돌보는 것을 추구하며 자비심에 의한 자선적 행위로 대표되는 사회봉사(social service)에 치중한다. 반면, 신학적 '진보' 진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이성'과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낙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로부터 이들은 '정의'(justice)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보다는 주로 사회적 행위

(social action) 곧,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행위를 통해 사회의 구조를 변혁시키고자 한다.

이렇듯 신학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전망이 크게 다르며 각기 '사회봉사'와 '사회적 행위'를 한층 강조하는 것이 사실이다. 존 스토트는 예수를 따르는 순수한 크리스천의 사회적 관심은 '사회봉사'와 '사회적 행위' 양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Stott, 2006: 40)한 바 있는데, 필자도 이것에 동의한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공공선(public good)과 정의를 향한 사회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세 가지 정치적 선택으로서 권위주의, 무정부주의, 민주주의를 설명한 뒤, 서구에서 종교개혁이후 구체화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중우(衆愚)정치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두 측면 곧,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자 동시에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

소결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기독교 관점에서 '좋은 정치'란 "사회 내의 제반 가치에 대해서 민주 시민들이 이성적 토론과 타협 그리고 선거를 통해 특정 집단이나 정당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되는 '공공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의로운 배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수와 진보란 무엇인가?

현 한국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책임감 없는 정치인들에 의해 권력 게임에 이용당하면서 오늘의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 속에서 점점 더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전적으로 보수주의(이하 보수, conservative)와 진보주의(이하 진보, progressive)는 정치적 개념이다. 한 블로거(박원준, 2012)는 "인간 활동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보수는 기존의 시스템(제도 및 정책 등)에 존재하는 문제보다는 개인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진보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기존의 시스템이 더 문제라고 보는" 견해라고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기존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 시스템에서 잘 적응을 하고 그 시스템에서 적당한 생활을 해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자주 보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보적일 수 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단순히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박원준은 아래와 같이 요약을 하였다.

보수: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진보: 문제의 원인이 시스템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한 개인의 정치 성향이 되는 것일까? 이제까지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보통 부모, 교육, 민족, 문화, 성별, 직업, 소득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이 같은 판단은 필자 같은 사회학자들의 전통적인 영역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전학, 뇌과학 등의 분야에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어떻게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형성하는 지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진보적인 사람들과 보수적인 사람은 아예 뇌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브레인미디어, “서로 다른 뇌를 가진 보수와 진보,” 2017. 1. 16).

이들 연구에 따르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 자유주의적 좌파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측 편도체(amygdala)가 더 컸는데 이곳은 공포와 혐오에 관여한다. 또한 유전자가 정치성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을 조절하는 ‘DRD4-7R’이라는 유전자의 대립형질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친구들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했으며,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현재 상황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보수주의보다 진보주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성향과 성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질서를 지키고 덜 개방적이며 예의 바른 사람은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유쾌하고 감성적이며 동정심과 평등의식이 높은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을 띠었다.

이로써, 유전자의 차이나 뇌의 구조의 차이로 인해 변화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서로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르다’는 말을 ‘틀리다’로 사용하는 언어습관이 여간해서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실험결과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상식이 설득력을 얻게 한다.

한편, 오늘날 우파와 좌파 양 진영에 있는 사회과학자들은 대체로 진보주의자들보다 보수주의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고 합의하고 있다(김성건, 2012b). 한 예로서, 미국의 대표적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200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이 진보적인 민주당원들보다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매우 행복”하다고 68퍼센트나 더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패턴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것으로서 문제는 이것이 진실인가 여부보다는 왜 그런가에 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결혼과 신앙과 같은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에 초점을 모으는 설명을 좋아한다. 즉,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결혼을 하지만 적지 않은 진보주의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결혼과 행복은 종종 함께 간다.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다. 미국에서 특정의 신앙(예: 복음주의 개신교)을 갖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종교적 진보주의자들보다 그 숫자가 거의 4배 가량이나

된다. 종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속주의자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삶이 매우 행복하다는 답을 거의 두 배(43퍼센트 대 23퍼센트)나 많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차이는 이들의 수입, 교육, 인종, 성, 연령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종교와 결혼이 과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각자가 스스로 대답해야한 하는 쟁점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기혼이며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그리고 자녀를 둔)의 54퍼센트가 매우 행복한 반면, 독신으로서 세속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그리고 자녀가 없는)의 단지 14퍼센트만이 매우 행복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 간의 행복 격차를 설명하는 데는 종교와 결혼 변수 외에 보수주의자들이 타인의 불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만일 보수주의자들이 이 세상 속의 부정의를 인식한다면 이들이 그렇게 즐거울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미국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보다 덜 행복한 이유는 진보주의자들은 사회 속의 불평등의 정도를 합리화하는데 이념적으로 보수주의자들보다 덜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학문적 용어로 표현하면, '체제 정당화'(system justification)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통계 데이터는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시장 체제를 진보주의자들보다 한층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고로 최근 한국의 경우 국민의 약 63퍼센트가 자유시장 체제를 긍정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온 바 있으나, 이 통계가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을 구분하여 두 집단을 비교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인 개인이 자신의 성취에 기초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사람들을 환경과 억압의 희생자로서 바라보는 경향이 더 많고, 그래서 개인들이 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상승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 달리 말해서, 보수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비록 서로 다른 기회를 갖고 출발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참고 견디면 통상 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 심지어 상위 소득층의 진보주의자들마저도 – 이 같은 생각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다. 간단히 말해서, 진보주의자들은 공정하고 진보된 사회를 경제적 평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정의한다. 진보주의자들은 그들이 정의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별로 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의 행복을 비난한다.

최근 퓨리서치 센터의 히스패닉(Hispanic) 조사 총책임자인 마크 휴고 로페즈(Mark Hugo Lopez)는 라티노(Latino) 유권자의 약 20-25 퍼센트가 정치적 견해가 보수적이어서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보면서 이번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지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번 대선 직전 거의 모든 주류 언론은 힐러리 클린턴(Hilary Clinton)의 승리를 예상한 가운데 트럼프의 승리를 유일하게 예상했던 LA 타임즈의 최근 기사(2017년 1월 17일자)는 주

위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찍은 이들 소수 라티노들은 미국이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자신들이 믿는 가치를 대변하면서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에서 한국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민자 같은 소수집단은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의 지지자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로페즈에 따르면, 미국의 라티노 유권자 중에서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이 아닌 보수적인 공화당에 더 기울고 있는 두 개의 집단이 있는 데 바로 쿠바계 미국인들과 복음주의 라티노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경우에도 가장 보수적인 우파 집단이 바로 북한 출신 실향민과 복음주의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미국에서의) '정치적 이념과 행복의 관계'가 일차적으로 '세대'의 라인을 따라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확연하게 갈라진 현 한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현재 한국인을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놓고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요인들 중 앞으로 사회과학자들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측면이 바로 양 진영이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life style)과 '세계관'을 선호하고 있는 점이라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한국에서 지난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보수 우파 진영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진보 좌파 진영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약 108만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대통령에 가까스로 당선된 사실을 중시하면서 대선으로 드러난 한국사회 이념 양극화의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김성건, 2013). 이 때 필자는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라는 의미심장하면서도 흥미로운 부제가 붙은 『바른 마음』(*The Righteous Mind*, 2012)의 저자인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Jonathan Haidt)의 혜안에 주목하였다. 스스로 열렬한 리버럴(liberal, 진보주의자)이라고 생각했던 하이트는 이 책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서 정치적 담론 일반 특히 (선거에서 패배하는) 진보주의 진영을 주독자로 삼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직관적이라는 것"을 설파하였다. 만일 당신이 타인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감정(정서)에 호소해야 한다.

정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묻게 되는 질문 곧, "왜 상대편(반대 진영)은 이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에 대해 하이트는 답한다. 우리는 이성을 경청하도록 결코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추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람들은 추론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당신의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결론을 지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이트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보수당의 메시지를 좋아한다면 이것은 보수당의 메시지 안에 그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주의가 살아남는 것은 이 보수주의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는 지에 들어맞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를 타당하게 만들어준다. 보수당에 투표하는 노동자들이 바보가 아니다. 하이트의 말을 빌리면, 이 노동자들은 그들의 '도덕적

이익'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 한국의 18대 대선에서 보수 후보를 월소득 800만원 이상의 부자들이 지지한 것은 사실로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학력, 노령층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것은 여러모로 시사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필두로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 등으로 뚜렷이 나뉘어서 갈등하는 현 한국 사회가 과연 어떻게 이 같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이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분리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측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이디어 발명으로 일컬어지는 '인터넷'이 오늘날 '보수'와 '진보'의 쏠림 혹은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인터넷이 이것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오로지 그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는 증거만을 찾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사정은 미국 같은 세계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즉,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의 검색 항목에 각자가 관심을 갖는 것을 처넣는 순간 동일한 의제나 사건 혹은 현상에 대한 완전히 상반된 정보가 서로 각축하듯 나타나는데, 이 때 하이트가 말하는 '느린 이성'보다는 '빠른 직관'이 작동하여 우리는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수용하고 그 결과 우리의 편견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예로서, 아직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분열된 의식은 '정보의 보고'라고 칭송되는 인터넷의 어두운 폐해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명암'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인 인식과 그로부터 현명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세계화 속의 종교의 선택: 보수적 입장 대 진보적 입장

독일의 체계이론가인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1992)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세계화는 기능적인 하위체계(대표적 예: 과학과 세계 경제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미분화된 단순 사회와는 달리 오늘처럼 고도로 분화된 복합적 사회체계에서 종교적 영역의 규범, 가치 및 관행은 비즈니스, 정치 등과 같은 여타 영역에 대해 단지 '간접적'인 영향만을 가질 뿐이다. 루만에 따르면, 사회 내의 각 하위체계는 독특한 자율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동일한 사회적 환경조건 속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어떤 하위체계가 전체로서 사회체계와 관련되는 방식과 그 하위체계가 다른 하위체계들과 관련되는 방식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루만은 전자를 '기능'(function)으로 후자를 '영향'(performance)이란 견지에서 분석한다(Luhmann, 1982: 238-242).

종교체계의 경우 '기능'은 헌신과 경배, 영혼의 치료, 계몽 혹은 구원의 추구 등의 '순수한' 종교적 의사소통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Beyer, 1994: 80). 이로써 '기능'은 초월적인 것을 포함하는 순수한 '거룩한' 의사소통으로서 종교적 제도가

그 자체를 위해서 주장하는 측면이며 동시에 현대 사회 속에서 종교의 '자율성'의 기초를 이룬다. 반면에 종교적 '영향'이 행사되는 것은 사회 내의 다른 하위체계들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으나 그 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 예: 경제적 빈곤, 정치적 억압, 환경적 파괴 등 - 에 대해서 종교가 '적응'할 때이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을 통하여 종교는 삶의 '세속적' 측면에 대하여 그것의 중요성을 확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非)종교적 관심이 순수한 종교성을 침범한다. 달리 말해, 여타의 사회적 관심이 종교적 행위의 자율성 혹은 고유성을 '제약'한다.

이런 맥락에서 피터 베이어(Peter Beyer)는 『종교와 세계화』(1994)에서 오늘날 종교계 지도자들과 그들의 조직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종교는 다음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본다: (1) 사적(개인적)인 종교적 선택을 돌보아주는 사역(使役)에 집중하는 것, (2) 공공적인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Beyer, 1994: 93). 베이어는 오늘날 세계화의 조건아래 놓여있는 종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의 공식적 방향 - 보수적(근본주의적) 선택과 진보적(리버럴한) 선택 - 중 하나라고 본다(Beyer, 1994: 10).

그런데 어떤 종교지도자가 자신의 종교가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앞의 두 방향 중 초월성에 관한 전통적 관점을 재긍정하는 전자의 '보수적'(근본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후자의 '리버럴한'(진보적) 입장 즉, 공공적인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사회정의를 위해 각종 문제들을 천명하는 경우 이 문제들은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종교적' 문제들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소결로서, 한 종교체계가 루만이 말하는 '기능' 담당과 '영향' 행사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슬람교와 기독교 그리고 최근 들어 힌두교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근본주의는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서 성스러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여 양적인 발전을 이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벨라와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mann)이 잘 비판하였듯이 점차 비인간화되는 사회질서의 극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Bellah, 1967; Luckmann, 1967). 한편,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종교 진영의 경우는 최근 종교적 환경주의와 해방신학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사회정의를 위해 각종 문제들을 천명할 경우 이 문제들은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종교적' 문제들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렇듯 종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간접적'인 방식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는 기본적 한계에 더하여, 만일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참여를 하게 될 경우 이는 주로 '비종교적' 요인에 의해 틀지어지는 세속적 운동과 구별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종교의 고유한 본질마저 상실할 수 있는 '상대주의'의 위험에 종종 처하게 된다.

(6) 문화적 세계화와 '문화전쟁'[2)]

공간과 시간의 응축과 새로운 시·공간의 경험을 제공하는 세계화와 대면적 인간 관계보다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지배하는 기술 합리적 사회를 지향하는 정보화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환경, 인권, 평화 등과 같은 전 지구적 쟁점에 대해 한층 더 의식(意識)을 갖도록 만든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와 정보화는 사람들 가운데 '개별화'(개인주의화)를 증대시키며 또한 전통적 사회적 관계와 규범으로부터 급속도로 벗어나게 하고 있다. 그로부터 전통적 사회와 가족 같은 일차집단은 점점 약화되고, 사회전반 그 중에서도 특히 이른바 'IT혁명'(정보통신 혁명)으로 상징되는 격동하는 사회·문화적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수용하는 감수성 높은 젊은 층에 심각한 수준의 아노미(anomie) 즉, 무규범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세계화와 그 핵심을 차지하는 정보화는 일반 사람들 특히 젊은 층에게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지구촌에 불고 있는 개방적이며 모순적 과정으로서 세계화의 문화적 효과들 중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과 앤터니 기든스(Anthony Giddens) 등의 주장대로 '개인주의의 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세계는 전통과 관습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자신들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개인주의로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점에서 현 한국사회도 결코 예외가 아닌데, 이는 최근 병역거부자의 인권 같은 개인적 정체성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는 물론 성(性)과 성적 지향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변화, 그리고 호주제와 간통죄 폐지를 향한 페미니스트 주도의 양성 평등운동 등에서도 똑같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가족과 성성(sexuality)의 근본적 본질에 관해서 진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1980년대 말 게이와 레즈비언의 법적 권리를 놓고 찬반 양측의 논쟁적 주장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제임스 헌터(James Hunter)는 당시 이 문제를 놓고 미국에서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개신교도, 가톨릭교도, 그리고 유대교도들 간에 연합이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 '리버럴한' 개신교도, 가톨릭교도, 그리고 유대교도들 간에 연합이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한 분열을 뛰어넘은 이 같은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진 것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적이고 계급적인 이해관심에 기초하여 '우파'와 '좌파'를 나눈 전통적 정의(definition)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대신 그는 미국에서 '문화적' 관심에 집중된 새로운 '긴장의 축(軸)'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가 그의 '문화전쟁(culture war) 이론'이다. 헌터는 '문화적 갈등'(cultural conflict)은 궁극적으로 '지배(domination)를 위한 투쟁'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Hunter, 1991: 52). 비슷한 맥락에서, 일찍이 국가가 '강제'보다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더 큰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영향아래 최근 생성된 이른

2) 이 부분은 필자의 선행연구(김성건, 2009)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cultural Marxism)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투쟁은 '문화영역' - 교육, 이념, 태도, 기호, 신념, 어투, 의상 등 - 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헌터와 그람시의 주장을 한데 받아들여 현재 한국 사회의 '문화영역'에서 헤게모니(지배권)를 차지하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전쟁'의 본질을 이해할 경우, 이것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계급적 이해관심보다는 헌터가 말하는 서로 다른 ‘세계관’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문화전쟁을 단순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마찰이나 싸움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양쪽 모두 예민한 특정 문화적 쟁점들에 대해서 각기 내부적으로 다양한 찬·반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적 쟁점에 대해서 미국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보수적 종교집단들과 리버럴한 종교집단들이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 각각 연합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향후 만일 한국의 대표적 종교집단(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오랜 분열과 갈등을 벗어나서 미국의 사례처럼 문화 영역에서 크게 '보수'와 리버럴한' 진영으로 양분되어 각기 연합될 경우, 1960년대에 기원을 갖는 미국의 문화전쟁 사례는 한 세대 뒤인 1990년대에 시작된 한국의 문화전쟁의 전개와 방향을 가늠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본다.

현 한국사회의 '문화전쟁'을 추동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보다도 체제 '외적'으로 세계화와 정보화가 초래하고 있는 한국이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시적 ‘문화변동’이라 볼 수 있다. 그 외에, 이 '문화전쟁'은 체제 '내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이른바 ‘조·중·동’ 같은 보수 일간지와 한겨레신문, 프레시언, 오마이뉴스 등 진보적 신문 및 나꼼수 등 진보적 인터넷 매체 간의 싸움 등을 포함하여 전통적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의 오래된 이념적 대립구도와도 복잡하면서도 중층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보스턴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피터 우드(Peter Wood)는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Diversity: The Invention of a Concept*)란 책을 통해서 본래 미국에서 생성되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이 된 '다양성'(diversity)을 '문화전쟁'에서 좌파 지식인들이 발견한 새로운 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다양성'에 포위된 미국 우파들의 반격으로도 볼 수 있다. 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성의 개방과 성적 소수자 등 한국 사회에서 최근 점증하는 '다양성'과 관련된 많은 쟁점들에 직면하여 연령과 계급을 뛰어넘어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사실상 그야말로 뚜렷이 입장이 나뉜 '문화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한국사회는 좌파가 지배한 지난 10년 특히 노무현 정권 하의 5년 동안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요소들이 앞선 '이념논쟁'이란 일종의 '문화전쟁'을 치렀던 것이 사실이다. '외적'으로는 날로 거세지고 있는 '문화적' 세계화의 물결의 영향 속에서 그리고 '내적'으로는 오랜 이념논쟁의 여파로 인해서 지난 번 두 차례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연속적 승리와 집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와 '진보' 간의 '문화전쟁'에서 현재 상호 합의를 위한 '관용의 영역'은 불행히도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현재 세계화의 전면적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사회, 특히 세속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진보 진영에서 전통, 가족, 질서 같은 '재래적' 가치와 대조되는 다양성, 평등, 인권 등과 같은 '외래적' 가치가 이데올로기이자 신앙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람시가 말한 것처럼, 현 한국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이 '문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최근 9·11사태 이후 당시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세계화와 종교'에 주목하면서 오늘날 실시되고 있는 세계화의 문제는 본래 세속적이지 않고 또한 세속적인 것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문화들 속에서조차 '세속화'를 고양시키는데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교황에 따르면, 현재의 세계화는 세계 각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동안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공한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준거점'을 앗아가 버리는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좌파 지식인들에게 이 같은 교황의 경고는 한갓 전통주의자의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여겨질 것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세속문화의 일방적 지배가 초래할 각종 사회문제를 예상하는 필자로서는 교황의 주장에 대체로 공감한다.

3.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3)]

(1) 현황: 해방이후 현재까지

1945년 해방 뒤 대한민국은 과거 프랑스 등 유럽 각국과 우리나라(예: 고려, 조선시대)에서 종교와 정치가 너무 밀착하여 나타났던 문제들을 반성하면서 헌법에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하여 '정교분리'(政敎分離)를 지향하였다. 역사적으로 보아, 한국의 제도종교 집단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된 1970년대에 양적 성장을 거쳐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점차 그 세력이 상당히 커지면서 당시에 '정교분리'가 이미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김종서, 1990). 즉, 불교계를 위시하여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가톨릭과 개신교) 내부에서 '정교분리'를 둘러싸고 찬반론이 대립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종교계에서는 지난 1994년 3월 29일 일어난 조계종 폭력사태에서 잘 드러난 것과 같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주의적 개신교라든지 수많은 사이비 신흥종교들을 예로 들 수 있듯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교분리를 옹호하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종교 집단이 보여주는 '정치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역시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해방이후 약 60년이 지난 2005년 현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신교(861만명)는 전통 종교인 불교(1072만명)보다는 교세가 조금 작아서 종교 인구 면에서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톨릭(514만명)은 불교, 개신교에 이어 제3위의 종교이다.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할 경우 신자 수가 전 인구의 4분의 1이 훨씬 넘어서 한국은 아시아에

3) 이 부분은 필자의 선행연구(김성건, 2011) 제 3장의 3,4절을 일부 수정한 것임.

서 필리핀 다음으로 기독교가 강성한 국가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권력 쟁취가 제일의 목표인 정치권으로서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강인철, 2008: 3, 14-15).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1950년 6월 옛 소련의 영향 아래 북한이 남침하여 빚어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전후의 기간 동안 북한에서 거주하던 수백만 명의 개신교도들(그중 상당수가 부르주아 계급)이 공산주의 정권의 종교 탄압을 피해 신앙(종교)의 자유를 찾아 당시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던 남한으로 대거 내려오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 주로 정착하게 된 이들 월남 기독교인들은 선교초기부터 본래 개신교가 강성하였던 북한 교회의 유산과 저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남한) 개신교를 대표하는 장로교의 양대 교단(통합과 합동)의 가장 대표적 교회인 영락교회와 충현교회를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교회를 건립하는데 주축 세력이 되었다. 그 결과 월남 기독교인들과 이들의 후손의 존재가 오늘날까지도 한국 개신교로 하여금 여타 사회 집단보다 특히 친미·반북적이고 반공적이며 친기업적이고 보수적인 우파적 정체성과 사회적 성격을 갖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강인철, 2007).

1960년 '민주화'를 지향하는 4·19 혁명으로 인해 3·15 부정선거를 획책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황해도 출신 미국 유학파로서 개신교의 감리교 신자) 정권이 일거에 축출되었다. 그로부터 한국의 보수적 불교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경상도는 1961년 박정희 장군이 이끈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때부터 제6공화국으로 연결되는 30여 년간의 '산업화' '개발독재' 시대에 모두 불교 신자였던 세 사람의 군인 출신 대통령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 이 지배한 군사독재정권의 성립에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그런데 정치적 민주화보다는 경제발전을 우선 지향하는 산업화의 목표를 앞세운 군사독재정권에 대하여 당시 한국 개신교계가 맺은 관계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개신교 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 집단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등 복음주의 보수 진영과,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한국신학대학(현 한신대)의 기독교장로회(기장) 측과 일부 감신대 출신을 주축으로 하는 '소수'이지만 목소리가 큰 집단인 '진보' 진영 간에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태도 면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즉,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와 수원중앙침례교회의 김장환 목사를 위시하여 보수 진영의 대표적 지도자들은 정치적 '민주화'보다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앞세웠고, 그 결과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밀착하였다. 반면, 기장측 경동교회의 강원용 목사를 비롯하여 진보 진영의 대표적 지도자들은 '산업화'보다 '민주화'를 앞세우며 가톨릭정의사제구현단 같은 진보적 가톨릭 단체들과 연합하여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군사독재정권에 거세게 저항하였다.

여기서 주의를 끄는 것은 북한 출신 월남 기독교 지도자들이 출신 지역에 따라 남한에 와서도 대체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크게 갈라졌다는 사실이다. 즉, 보수적인 미국 북장로교와 북감리교의 선교 지역이었던 평안도 출신 인사들은 월남

이후 신학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호주 장로교의 선교지였던 경상도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적으로 보수 연합을 이루었다. 반면에, 본래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한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부의 선교 지역이었던 함경도 출신 인사들의 경우 남한에 내려와서는 주로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지역이었던 전라도 지역 출신의 일부 진보적 신학자들과 연합하여 기장 교단을 설립하였고, 또한 이후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타난 급진적 해방신학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는 민중신학을 주장하였고, 이들 중 일부 급진파는 급기야 민중신학과 북한의 주체사상 양자 간의 만남을 역설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한국 개신교의 진영은 한편으로는 평양신학교와 숭실대가 자리했던 서북(평안도) 출신과 영남 출신 지도층 교계 인사들의 결합으로 다수 집단인 '보수' 진영이 성립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함경도 출신과 전라도 출신 일부 지도층의 결합으로 한국신학대로 상징되는 소수 집단인 '진보' 진영이 성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과 한국기독교협의회(KNCC)는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각기 대표하는 단체로서 신학적으로 지역적으로 서로 크게 다른 두 진영이 가까운 장래에 화합할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별로 크지 않다고 본다.

지난 1987년 역사적인 6·29 선언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에서 경상도 출신 김영삼 후보와 전라도 출신 김대중 후보 간에 단일화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것으로 인해 육사 출신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후 1992년 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수 개신교(충현교회)의 장로인 김영삼 후보가 자신은 가톨릭 신자이지만 부인이 감리교 신자로서 개신교 진보 진영의 지원을 받은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먼저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영삼 후보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 역사적으로 항상 친여적 속성을 보여 온 불교계의 대표적 종파인 조계종 집행부 세력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유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영삼 후보는 당시 '장로 대통령'이란 이미지 때문에 개신교의 보수 진영 대다수로부터 또한 이에 더해 개신교 진보 진영의 일부 인사들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다. 그로부터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권에 개신교 진보 진영 중 김영삼 후보를 도왔던 장로교 통합 측 인명진 목사 같은 인물들 다수가 깊숙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 후 지난 1997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놀랍게도(?) 충청도의 김종필이 이끈 자민련과의 전략적 연합을 시도한 김대중 후보가 극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동서간에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보다는 이른바 '햇볕정책'을 강조하며 '제2의 건국'을 주창한 김대중의 온건 좌파적 정권에 김성재 교수 등 한신대 출신 기장 측의 진보 인사들과 감신대 출신 감리교 일부 진보 인사들 및 성공회 이재정 신부 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 후 2004년에는 의문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을 둘러싸고 야당으로부터 국가 정체성 시비의 주인공이 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좌파적 성향이 짙은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 지난 김대중 정권 하에서 이미 현실정치에 뛰어든 진보진영의 개신교 지도자들 중 다수가 여전히 깊이 참여하였던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2) 논란: 김진홍 목사, 기독당, 촛불집회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편, 지난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핵심 쟁점이 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이념, 지역, 세대 간 심각한 '남남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정치권 복음화를 지향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연 창당된 기독교정당이 정당별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고작 1.1% 밖에 얻지 못하여 거의 해산되는 일이 나타났다. 반면 이와 비슷한 시점에 한국 개신교 진보 진영의 경우, 본래 캐나다에서 민중신학을 전공한 성공회 신부로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창출에 깊숙이 참여한 성공회대 총장을 지낸 전 이재정 의원(열린우리당)이 정치자금문제로 구속되어 수감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지난 1970년대에 청계천에서 활빈교회를 개척하여 노동자와 기층민중을 위한 민중신학을 주도한 바 있는 김진홍 목사(장로교 통합측)는 최근 뉴라이트 운동의 대표자로 나선 것에 더하여 2007년 실시된 7·26 재보선에서는 놀랍게도 서울 성북 을에 출마한 민주당 조순형 후보의 거리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선 바 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주요한 성직자들이 현실 정치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김진홍 목사의 경우 그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이념면에서 당시 체제에 저항한 진보적 인사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김영삼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 김대중 정부를 거쳐 그 다음 노무현 정부로 연결된 문민정부의 흐름 특히, 그중에서도 지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그가 보수주의자로 갑자기(?) 정치적 입장을 크게 바꾸어서 당시 정치체제에 대해서 저항하였고, 소망교회 장로 출신으로서 우파 정권인 이명박 체제에서는 청와대와 밀착된 관계를 보였다.

김진홍 목사의 최근 정치적 입장 변화 사례는 표면적으로는 일반 기성세대의 '보수화' 경향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필자가 김진홍 목사의 정치적 입장 변화사실에 새롭게 주목하는 것은 이 같은 입장 변화 그 자체가 갖는 정치적 함의는 물론 이런 변화 그 자체가 포스트모던의 세계화시대에 어쩌면 가장 큰 사회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는 종교계의 현실적 딜레마를 부분적으로 잘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진홍 목사의 정치적 입장 변화가 갖는 시사점에 주목할 경우, 이는 사회 현상들 중 어떤 것도 지나치게 한 쪽으로 기울게 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결국 '균형'을 찾게 된다는 일반의 상식과도 일단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진홍 목사가 정치적 의식 측면에서 최근 들어 커다란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문민정부 특히 지난 김대중 정부 이래 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점차 가속화된 집권 세력의 이념적 좌편향과 집권층 내 아마추어리즘의 증가 그리고 이것이 초래한 사회 갈등과 분열의 고조에 대한 종교계 일각의 자연스런 반응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김진홍 목사로 대표되는 종교계의 현실 정치 참여의 방식과 수준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자세히 따지는 작업을 하기에는 논제의 예민한 성격상 다소 벅찬 감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필자는 시론적 수준에서 김진홍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 속에 짚어보고자 한다.

민주당 조순형 후보에 대한 길거리 지원 유세를 벌인 김진홍 목사의 경우, 그의 정치적 행위와 발언은 개신교의 저명한 목회자 혹은 일개 자연인이라는 신분 이전에 먼저 최근 언론의 주목 속에 발기된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이란 공인의 입장에서 다소 경솔한 행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V를 통해 조순형 후보 지원자로 갑자기 등장한 김진홍 목사의 존재를 접하게 된 일반 시민과 특히 수많은 개신교도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순간 김진홍 목사의 순수한 의도와 열정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뉴라이트 운동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탄핵의 주인공 역할을 한 조순형 후보의 이미지가 한데 겹쳐져서 이른바 '인지부조화' 내지는 약간의 심리적 충격을 겪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진홍 목사의 길거리 지원 유세 소식이 일반에 알려진 다음, 386 운동권 출신으로서 같은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자유주의 연대의 홍진표 집행위원장이 “조순형 후보는 뉴라이트 운동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홍진표 위원장은 7월 23일 웹진 뉴라이트 (www.new-right.com)에 ‘김진홍 목사의 조순형 지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 목사는 조 후보 지지가 개인적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조직의 수장이 공직선거에서 공개적으로 특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건 그 조직의 정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전국연합, 나아가 ‘뉴라이트’라는 브랜드를 내건 정치적 영향력 행사이며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성직자이자 사회운동가인 김진홍 목사가 당시의 일을 통해서 크리스천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다소 잃게 된 것은 물론 본래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로서 뉴라이트 운동의 향후 노선 갈등내지는 분열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기존 권위를 도전하는 포스트모던의 시대 조류에 더해서 세계화의 결과 출현한 전 지구적 사회현실이 세계의 주요 종교들을 예전보다 한층 '상대화'시킨다는 측면을 중시한다. 앞부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화의 조건아래 놓여 있는 종교계의 지도자들과 조직은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종교적 선택을 돌보아주는 전통적 사역에 집중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든지 아니면 공공적인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사회정의를 위해서 각종 문제들을 천명하는 ‘진보적’ 입장을 취하든지 대체로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 –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 – 중 후자 즉, 공공적인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천명하는 경우 이 문제들은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종교적' 문제들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종교집단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해서 해당 종교는 삶의 '세속적' 측면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일단 확립할 수 있고 사회적 영향력을 증가시켜서 결국 포교에도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종교적' 관심이 순수한 종교성을 침범하기 쉽다는 측면이다. 달리 말해, 여타의 사회적 관심이 종교적 행위의 자율성 혹은 고유성을 종종 제약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현실참여에서 늘 나타나는 중요한 딜레마이다.

한편, 지난 2007년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당시 막강한 금력을 앞세우면서 전국의 245개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천명한 통일교 측의 평화통일가정당(이하 가정당) 출현에 대응하여 갑자기 기독사랑실천당(이하 기독당)이 출현한 바 있다. 그 당시 개신교계의 보수적 원로들이 모여서 "통일교가 정당을 만들었으니 우리도 만들어야 하고, 정당투표에서 밀어주어 통일교에 대응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축한 한국교회[4] 내 일부 교계 원로들의 지지 속에 출현하였다가 개신교 대중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해서 갑자기 침몰한 기독당의 등장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필자는 우선 기독당 출현의 배경 요인으로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지적한 다음, 기독당에 대해서 간략히 객관적인 평가와 전망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당의 출현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공신력의 계속적 저하와 함께 양적 성장 역시 정체되거나 감소상태에 있는 보수적 개신교가 최근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그동안 비판받아온 정교분리 원칙을 선회하여 이제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는 쪽으로 돌연 입장을 바꾼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에 더하여 기독교 계열의 최대 이단이자 오랜 라이벌인 문선명의 통일교가 전남 여수 일대를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개발하였고, 마침내 전국적인 통일교 정당(곧, 가정당)까지 설립하여 단 몇 명이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결국 통일교를 합법적으로 선전하려는 야심찬 계획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 평소 영적 전쟁의 세계관 속에서 공격적 선교를 지지한 보수적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기독당을 출현하게 한 중요한 촉발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오늘의 정보화 혁명이 수반한 이른바 '지식의 대중화'로 인해서 종교 영역의 경우도 종교적 지식의 전달자들과 수용자들 양자 간의 구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Inoue, 1997). 이런 측면에서, '세계화와 종교의 상호관계'(김성건, 2015a)에 주목하는 필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화 사회를 이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한국에서 기독당의 출현은 최근 위성방송과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시대가 종교 영역에 초래한 새로운 변화 곧, 종교적 전문가들(기독교의 경우 목사)과 일반 평신도들 양자 사이의 거리가 소멸됨으로써 결국 전통 기성 종

4) 종교사회학자 강인철(한신대)은 최근 논문(2008:21)에서 지난 17대 대선에서 "개신교로부터 나온 300-400만 표가 사실상 당락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교 내의 종교적 전문가들의 권위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한 이들의 불안의식 내지는 대안을 찾으려는 정서가 일정 부분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곧, 정보화 혁명의 결과 예전에 누리던 전통적 권위가 계속 상실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한 종교적 전문가들(특히, 개신교 목사) 중 일부는 자신들의 존재나 권위를 종교 '밖'에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결과, 기독당 같은 종교 정당이 평소에 인격과 언행 면에서 교계 안팎에서 귀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커다란 논란을 자아낸 바 있는 전광훈 목사 같은 이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불행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배경 요인 속에 출현한 기독당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 같은 다종교 세속국가에서 각 종교들이 제각기 정당을 만들 경우 정치판이 종교간 전쟁터가 될 것이고 그럴 경우 혼란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최근인 2004년에 실시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조사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바람직한 참여 범위를 묻는 물음에 '종교 자체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4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문화 분야 활동까지는 좋으나 정치 분야 활동은 반대한다'(30.9%), '사회/문화/정치 분야 활동 모두 하는 것이 좋다'(17.7%). '정치 분야 활동은 좋으나, 사회/문화 분야 활동은 반대한다'(1.7%) 등의 순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를 국민 대다수(80.3%)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의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기독당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기독당이 교계 일부 유명(?) 원로들의 지지를 받으며 출현하였다고 하지만, 현실 정치와 '창조적 긴장관계'보다는 '용해'를 추구하는 신생 기독당이 갈등하는 한국 사회와 위기에 처한 교회의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었을 것인지는 긍정적 생각보다는 의구심이 앞선다. 앞으로 정보화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 전문가 집단의 권위 약화는 필연적일 것이고, 그에 따라 최근인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돌연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세간의 화제가 된 인명진 목사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일부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대안 혹은 탈출구로서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현실 정치에 섣불리 참여하려는 쪽으로 여러 가지 시도가 잇달아 일어나리라 전망된다. 그렇지만, 이 같은 행보는 종교의 고유한 사명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사회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는 대열의 중심에 서야 할 성직자들로서는 성직자답지 않은 왜곡된 문제적 행태라고 본다. 또한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를 국민 다수가 뚜렷이 반대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최근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 특히 교계 안팎에서 날로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성직자들 편에서 먼저 겸손히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당 출현 해프닝을 계기로 한국 교회는 '성직자다운 성직자상'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가하고 싶은 것은 지난 2004년 3월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정당이 갑자기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당시 좌파 진영이 보여준 흥미있는 냉

소적 해석이다. 이들에 따르면, 조용기 목사, 김준곤 목사, 김삼환 목사 등이 주요 발기인으로 참여한 기독교정당은 첫째, 1990년대 이래 한국의 보수 개신교 진영의 침체 내지는 하락과 둘째, 김대중 정권 수립이후 계속적으로 그들이 속한 보수 우익 기득권이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는 그 정당성마저 크게 도전받게 된 것과 셋째, 특히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재야 운동권 출신 좌파 민족주의자가 대거 참여한 당시 노무현 정권의 반미적, 친북한적, 반기독교적, 반기업가적 속성과 그로부터 목도되는 사회 전반의 '좌향좌'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발로부터 출현한 것이다.

한편, 2007년 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살리기'를 앞세운 CEO출신이자 소망교회 장로로서 실용주의자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 전 국론을 양분시킬 정도로 거세게 제기된 도덕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자의 48.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이로써 한국 사회는 일단 '좌'(左)에서 '우'(右)로 이념적 시계추가 향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봄 취임 연설에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일반 국민들 특히 보수적 개신교 진영의 인사들에게 벅찬 감동과 기대를 한껏 자아냈다. 그렇지만, 대선 뒤 소망교회 권사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진두지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잇단 무리와 실수 외에 이후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인사(人事)에서도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문제 등 난맥이 나타났다. 그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부터 일반의 예상과 달리 이전 정권의 경우보다 크게 흔들렸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기본적 신뢰를 잃게 되는 등 상당한 한계를 드러냈다.

게다가 지난 2008년 4월 총선 전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측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 사이의 꼴불견의 지루한 분열상이 나타났다. 이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급기야 박근혜 대표가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속았고, 나도 (그에게) 속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함으로써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되었다. 그 결과 취임 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 개인은 물론 그가 이끄는 새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 모두에 커다란 흠집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기치 아래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치열한 경쟁의 논리, 영어몰입 교육 등을 앞세운 '4·15 교육개혁'을 국민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히 발표하고 이를 거세게 추진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입시교육체제에 시달리는 우리의 중고생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상당한 스트레스와 피곤감을 더해 준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08년 4월 29일 MBC의 'PD수첩'은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담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보도를 하였다. 이 'PD수첩'은 광우병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부분에 대해 2008년 5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정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PD수첩'은 최초 방영 당시 이미 일반 시청자 특히 이른바 '영상세대'로 불리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크게 어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던의 영상시대 속에서 태어나서 문자보다 영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젊은 디지털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사물의 본질이 아닌 허상, 즉 '이미지(image)와 환상'(부어스틴, 2004)을 좇게 되는 경향을 상대적으로 더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PD수첩'을 시청한 청소년들은 그 내용의 사실성이나 진위 여부를 차분히 따져보고 확인하기 보다는 그 보도가 담아낸 광우병을 둘러싼 선정적이고도 충격적인 영상과 이미지 자체에 대한 그들의 즉각 반응을 네티즌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유명한 '아고라' 토론광장에서 쏟아 놓게 되었다. 온라인상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폭발적으로 펼쳐진 토론은 마침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는 새로운 기발한(?) 제의로 이어졌고, 결국 2008년 5월 2일 서울에서 놀랍게도(?) 10대 중고생 청소년들이 대거 주축이 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처음 열리게 되었다.

10대 신세대가 주도한 촛불집회가 처음 있은 후, 그로부터 나흘 뒤인 2008년 5월 6일에는 기성세대의 기존 시민단체인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의 제안으로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발족하였다. 진보연대는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같은 대표적 친북(親北) 단체들이 연합해서 2007년 9월에 만든 단체다. 그동안 전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온 단체인 이 대책회의는 급기야 2008년 6월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2008년 6월 20일까지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한다"면서 "정부가 주권자 명령을 끝내 거부한다면 정부 퇴진 국민항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필자는 촛불집회가 본래 자신의 건강과 생존에 일차적 관심을 가진 '순수한'(순진한) 10대 청소년들로부터 출발된 사실에 다시금 주목하게 된다(김성건, 2008). 비정치적인 성격을 지녔던 촛불집회는 처음 시작이후 약 한 달 동안 점차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 결과, 한 때는 '좌파 민족주의' 조직인 대책회의의 초법적이며 엄포에 가까운 주장에서 잘 나타나듯 그야말로 뚜렷이 반정부적인 정치적 시위로 변질되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필자는 한국사회에서 한동안 최대 쟁점이 되었던 이 촛불집회를 계기로 한국 개신교계 내에서 오랜 난제인 '보수'와 '진보'의 양분 현상이 불행히도 한층 더 벌어지게 된 사실을 재주목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세계화와 관련된 쟁점 - 예로서,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문제 - 이 놀랍게도(?) 종교에 대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증으로서 종교(한국 개신교) 내부의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분할의 심화'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저런 동기로 2008년 촛불 집회에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아니면 직접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일부 기독 청(소)년들이 자신과는 관점이나 입장이 크게 다른 보수적 진영의 교회에 속해 있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자신의 교

회와 모종의 심리적 갈등을 빚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상황에 더하여 연일 진보적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까지 받고 있는 이 땅의 보수적인 교회는 우선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가톨릭 신자로서 진보적 사회과학자인 강인철 교수(한신대/종교사회학)는 2008년 7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심포지엄(한국사회와 기독교)에서 "한국사회와 한국기독교의 과제: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에 관한 종교사회학적 분석"이란 발제를 통해 결론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개신교 보수 그룹에 관해서 비판적 전망을 내놓았다.

> 개신교 내부의 균열, 불교와의 균열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개신교 보수 그룹은 시민사회 내에서도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처럼, 개신교 보수 그룹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공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와의 수렴)에서 심각한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종교적 선택이 가능하고 특정한 종교적 선택이나 변경을 강제할 수 없는 현대적인 종교다원주의 상황에서, 교회가 시민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것은 교회의 중장기적 생존과 성장, 한마디로 교회의 제도적 이익에도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강인철, 2008: 32).

필자는 한국의 보수적 개신교 진영에 대한 강인철 교수의 혹독한 비판과 비관적 전망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한다. 그러면서도 필자는 한국 같은 종교다원주의적 사회에서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라이스 윌리엄스(Rhys Williams, 2003: 326-327)가 말하는 '종교적 언어'와 '공중의 언어'의 수렴 곧, 종교(특히 근본주의적 종교)와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소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윌리엄스도 인정하였듯이,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두 언어 사이의 괴리가 계속 더 커져 가는 상황에 있다고 본다. 현대사회의 제도적 분화는 자아의 발견과 나란히 전개되고, 그 결과 개인의 주관성의 증대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종교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근본주의는 단순히 '근대화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라는 종래의 상식적 인식을 비판한다(김성건, 2002: 162). 그 대신 필자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을 구가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개신교 근본주의 양자 모두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자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운동으로서 "변화하는 세계로부터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이 세계 내에서 의미있는 행위를 창조하도록 만들어주는 수양과 힘의 근원"(Ammerman, 1987; Wuthnow and Lawson, 1994)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김성건, 2002: 184)을 지지한다.

이로부터 "교회가 시민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것은 교회의 중장기적 생존과 성장에도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강인철 교수의 전망에 대해서, 필자는 대체로 근본주의적 신학을 가진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중요한 특성으로서 '이 세상(특히 정치영역)에 대한 깊은 '회의'(마틴, 2002: 61-62)를 갖고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대체로 시민사회와 고립되는 것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자체적으로는 생존과 성장을 이어왔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것은 "(현재) 한국교회는 교인 숫자가 줄고 있지만 대형교회의 교인 수는 늘고 있다"(뉴스앤조이, 2008년 9월 18일자)는 기묘하면서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 내적으로는 보수 그룹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도, 시민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그로부터 상당한 지지와 존경을 얻는 개신교 중도·진보 그룹이 빠르게 성장해서 교회지도자들을 조롱하는 대중으로 하여금 적어도 교회에 대해 '헷갈리는 이미지'라도 갖게 만들 수 있는가가 교회의 향후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는 강인철 교수의 결론(2008: 33)은 필자가 보기에 종교의 고유한 '영적' 측면을 도외시한 채 너무 사회학적 일반화를 지향한 사회과학적 냄새가 나는 주관적 해석이라 판단된다.

4. 한국 정치의 갈등구조를 기독교적 관점에 기반하여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한국 정치의 갈등구조가 이념, 세대, 지역, 문화(세계관)의 측면에서 중층적으로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현재로서는 이 네 가지 갈등의 축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쉬운 것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교회를 강조하는 반(反)자본주의적 가톨릭과 달리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종교적 개인주의'의 전형으로서 동시에 친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 교회는 대체로 중산층이 다수인 '보수 우파'로 일찍이 자리 매김된 상황이다. 또한, 세대의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성장이 멈추어 실제적으로 하강세에 있는 한국교회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자연적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기성세대 곧, 중년 및 노년세대의 종교가 된 것이 사실이다(김성건, 2015b). 그리하여 개교회마다 거의 대다수가 청년층은 축소내지 쇠퇴하면서 고령화가 촉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보수와 리버럴한 문화 간 갈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전통지향적인 한국교회는 가족과 보수적 성(性) 등 보수적 문화(세계관)를 가장 대표하는 집단인 것이 사실이다. 이는 동성애 혹은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 대체로 침묵을 지키거나 수용하는 타 종교와는 달리 한국교회 내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 기반하여 한국의 난제인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밝혀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충(忠)과 효(孝) 같은 수직적 가치에 기반한 유교의 영향아래 아직도 전통적인 학연, 혈연, 지연에 기초한 가족주의(familism) 혹은 집단 이기주의(group egoism)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유권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특정 후보에게 무조건 몰표를 주는 '종교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특수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종교를 뛰어넘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갖다 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와 이웃사랑 그리고 공공선 같은 보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세계 종교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의 교인들(특히 영남과 호남의 크리스천들)이 지연 같은 특수주의보다 보편주의의 바탕 위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주의의 양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영남의 대구와 호남의 광주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을까? 필자의 개인적 관찰에 따르면, 불행히도 대구의 크리스천들과 영남의 크리스천들은 동일한 신앙고백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 선거에 임해서는 각 고장의 주도적인 정치적 기류에 편승하여 지역주의적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필자는 한국 정치의 갈등구조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타종교보다 그래도 보편주의를 신봉하는 개신교가 분명히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한층 더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젠 양 지역의 주요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인식의 대전환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개신교 주요 교단정치에서도 지역주의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필자의 이 같은 주문은 한갓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위기를 자각하는 뜻있는 성직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정말 개신교가 거듭나도록 새로운 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두 지역 간에 교회 간 강단 교류, 찬양대 교류는 물론 학생과 청년들의 연합 수련회, 영호남 간 결혼 장려 프로그램 및 교회가 어떻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토론회와 세미나 같은 것들을 꾸준히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교계 안팎의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로부터 한국 교회는 한층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이며 동시에 한국교회가 서있는 한국사회의 정치에도 고질적인 갈등구조가 조금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지역주의를 극복하거나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조직이나 제도 혹은 집단은 그나마 사실상 개신교가 유일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한국교회의 올바른 정치참여를 위한 제언[5)]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오늘날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세계화의 흐름 가운데서 기독교 내의 특정 진보적 종파나 집단이 급진적 정치·사회운동과 전략적 차원에서 연대하여 현실참여를 할 경우 이것을 둘러싸고 진보적 참여파와 나머지 기독교계 일반, 특히 보수진영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갈등과 대립의 필연성을 감지하게 된다. 이 점은 강인철 교수의 다음과 같은 예측에서도 잘 나타난다.

5) 이 부분은 필자의 선행연구(김성건, 2011) 제3장의 맺음말을 상당 부분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한 것임.

이명박 정부가 현재처럼 개신교 진보·중도 그룹과의 협력을 배제하고 개신교 지형을 보수 그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려 할수록, 개신교 진보·중도 그룹이 사회운동 방식의 정치참여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강인철, 2008: 32).

이 같은 쉽지 않은 '정치와 종교'의 관계 쟁점 및 종교 내부의 보·혁 간 갈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진보적 진영이 정치참여에 몰입하기 보다는 현 시점에서 기독교의 종교적 차원, 곧 '영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김성건, 1991: 176-177). 이 점은 영국의 진보적 신학자이자 제3세계 사회경제발전 전문가인 찰스 아일리옷(Charles Elliott)(1989: 47)이 일찍이 한국의 민중신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부활'의 차원을 무시 또는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도 연관된다. 반면에 보수주의 신학계, 특히 축복과 번영의 신학을 대표하는 진영은 영광의 '부활'만 강조하면서 고통의 '십자가'는 대체로 무시한 것을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수주의 진영은 지금까지의 틀에 박힌 문자주의적 성서해석에서 벗어나서 예수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재검토하여 보다 균형 잡힌 국가관 및 사회관을 정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이에 더하여, 날로 깊어가는 한국 사회의 경제 불황과 그 결과 심화되는 '양극화'(김문조, 2008) 속에 보수와 진보 간에 이념적으로 심각한 '남남갈등'을 겪으면서 사회 분열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개신교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양자 모두 각기 크게 실추된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바탕 위에서 정치권력과 과연 어떤 관계를 수립해야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논의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한국 개신교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이미 종교 권력화된 집단으로 비추어지는 보수진영은 우선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협력한 것과 최근 기독교정당을 졸속으로 창당한 것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또한, 한 예로서 지난 17대 국회의원 중 34.4%를 차지한 개신교 의원 중 무려 7명을 배출한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 5명의 의원을 배출한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3명을 배출한 수원 중앙침례교회 등을 비롯하여 보수적인 초대형교회의 저명한 담임목사들은 스스로 국회의원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라고 자고자대(自高自大)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개신교 간에 과연 바람직한 관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감과 함께 한층 더 고민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이재철 목사(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가 최근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소장 이태형)가 주최한 '위대한 설교 컨퍼런스'(2008년 9월 17일, 서울 목동 제자교회)에서 '복음을 미끼로 삼지 말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하여 "현재 한국에서 20대 초대형교회에 속한 신자 수는 무려 150만 명쯤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으로 포진해 있는데, 이들이 공익이나

사회정의 등은 외면한 채 이러한 가치들과는 동떨어진 신앙생활로 비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뉴스미션, 2008년 9월 18일자)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 아울러 같은 강의에서 "대형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대형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재철 목사가 "한국교회가 사회정의와 사회윤리를 생각하도록 설교를 했다면 교회는 대형화되기 어렵다"라고 강조한 사실이 한국 개신교계의 대표적 진보 언론인 뉴스앤조이(2008년 9월 18일자)의 커다란 관심을 모은 것도 눈길을 끈다.

둘째, 진보 측 개신교 진영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이 촉발한 민주화 운동에서 훌륭한 참여와 그 과정에서 어려운 희생을 치르고 온갖 고통을 당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진보 진영은 김대중 정권이후 지난 노무현 정권까지의 10년 동안 현실정치에 너무 깊게 참여한 결과 당시 체제에 대해서 신앙 양심상 필요한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진보 진영은 스스로 도덕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 종교 고유의 기능을 감당하는 데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이는 진보 진영의 교단과 교회가 최근 현저하게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된 것에서 잘 증명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그동안 스스로 민주화의 주체 세력이라는 자부심에 너무 깊게 경도되었던 나머지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여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겸손하게 반성하는 일이 우선 요구된다.

존 스토트는 크리스천이 오늘날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책임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크리스천의 심성'(a Christian mind)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크리스천의 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쟁점들을 분석하고, 성서를 읽으며, 타인들에게 귀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마침내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스토트는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전체로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것이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Stott, 2006: 43-44). 그 이유는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해당 쟁점이나 정책에 대해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교회가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섣불리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사태가 예상 밖으로 전개될 경우 교회의 공신력에 저하나 실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문제, 4대강 개발 사업, 제주 해군기지 사업, 미국과의 FTA 등에 대해서 일부 교회의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찬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사회운동을 주도한 것이 과연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진지한 토론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제언으로서, 필자는 선진 민주국가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그동안 단일 쟁점에 대해서만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정치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을 뛰어 넘어 2001년 이른바 '정치참여연합크리스천'(Christians in Politics)[6]을 결성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조직은 현재 영국의 주요

한 세 정당(보수당, 노동당, 독립당)에서 각기 활동하고 있는 서로 정치적 이념이 다른 크리스천들이 한데 모여서 정치가 만들어내는 공공정책에 어떻게 하면 '천국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을 지 그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크리스천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직은 영국의 크리스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각기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하고 이를 토론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독교 관점에서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부터 필자는 2017년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중 무려 약 4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알려진 크리스천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주요한 정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이념에 제각기 동조하는 일반 크리스천들이 가칭 '한국기독교정치참여연합'(한기참)을 조직하여 이 조직의 주최로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 혹은 집담회 등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안 쟁점들을 기독교적 가치 아래 공론화하고 이를 입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일이 현시점에서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자세는 앞의 서론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 사회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와 정치' 사이에 완전한 '분리'나 지나친 '융합'(밀착)보다는 '창조적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수용한 바탕 위에서 그 동안 한국교회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현실 정치 참여의 방식과 도덕성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많았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특히 지도층 인사들이 공인으로서 좀 더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7]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개신교계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최근 종교편향 논란을 계기로 차제에 스스로가 그동안 지역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웠는지 그리고 또한 정치권력과 과연 올바른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심각히 반성해보면서 종교의 고유한 사명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사회발전을 위하여 정치권력과 '창조적 긴장관계'를 갖는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진정 '의식'(意識)과 '제도'(制度) 양면에서 긴요한 올바른 개혁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의 발전과 관계된 한국교회의 과제를 생각해보면, 우선 영성(spirituality)과 사회참여를 결합한 '섬기는 교회'(밀러와 야마모리, 2008), '나누고 돌보는 교회'(이원규, 2000: 363)가 되어 실추된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

6) http://www.christiansinpolitics.org.uk

7) 2008년도 지방선거 유세기간 중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의 대형교회인 모 침례교회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저명한 원로급에 해당하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도인 염홍철 열린우리당 대전시장 후보를 "크리스천이 공직에 나서게 밀어주자"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신도들 가운데 회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성직자의 현실 정치참여는 필요한 것이지만, 잘못 참여하게 되면 국가와 그리고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종교 전체에 누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라고 본다.

참고문헌

강인철. (2007).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보수적 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 탐구』. 서울: 중심.

강인철. (2008). "한국사회와 한국 기독교의 과제: 한국교회의 정치참여에 관한 종교사회학적 분석." 한국기독교협의회 선교훈련원 에큐메니칼 아카데미 제1회 "한국사회와 기독교" 심포지엄(2008. 7. 24. 서울 기독교회관 대강당) 주제 발표 논문. 1-34.

김성건. (1991). "초기 기독교의 성격: 종교사회학적 고찰." 『종교와 이데올로기』. 서울: 민영사. 149-177.

김성건. (2002). "세계화와 현대 종교의 구조적 위기." 『한국사회학』 36(4): 157-192.

김성건. (2004). "한국 개신교회의 정치참여: 사회학적 비판." 『교회와신학』. 58: 26-32.

김성건. (2008). "촛불집회의 십대 흡인력, 그 명(明)과 암(暗)." 『목회와신학』. 7: 212-214.

김성건. (2009). “문화적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문화전쟁,” 『담론201』 한국사회역사학회, 12(2): 27-52.

김성건. (2011). 『한국교회의 현실과 쟁점』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김성건. (2012a). “기독교와 정치: 미국와 한국의 복음주의를 중심으로,” 『담론201』 한국사회역사학회, 15(2): 109-133.

김성건. (2012b). “진보와 보수, 그리고 행복의 상관관계,” 뉴스미션, 12월 17일자.

김성건. (2013). “대선으로 드러한 한국사회 이념 양극화, 해법은?” 뉴스미션, 1월 9일자.

김성건. (2015a). 『글로벌 사회와 종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성건. (2015b).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한국교회,” 『신학과 사회』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9(1): 77-106.

김종서. (1990). "정치운동인가 종교운동인가." 『'90년대 한국사회의 쟁점』. 서울: 한길사.

김문조. (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서울: 집문당.

뉴스미션. 2008년 9월 18일자.

뉴스앤조이. 2008년 9월 18일자.

동아일보. “강추위 속 ‘재벌개혁-열사추모’ 촛불…보수, 태극기·십자가 맞불” (2017년 1월 14일자).

마틴, 데이비드. (2002). "복음주의의 급증과 그 정치적 함의." 피터 버거 엮음,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종교의 부흥과 세계 정치』. 김덕영·송재룡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59-76.
밀러, 도날드, 테쓰나오 야마모리. (2008). 『왜 섬기는 교회에 세계가 열광하는가? 기독교적 사회참여의 새로운 모델, 성령운동』. 김성건·정종현 옮김.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박길성. (1995).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서울: 나남출판사.
박원준. (2012). "보수와 진보, 대립에서 균형으로 희망하며…," 12월 21일자. (june.meson.kr/2012/.../conservative-and-progressive-from.html). (2017-01-17)
부어스틴, 다니엘. (2004). 『이미지와 환상』. 정태철 옮김. 서울: 사계절.
브레인미디어. "사설: 서로 다른 뇌를 가진 보수와 진보" (2017년 1월 16일자).
우드, 피터. (2005).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김진석 옮김. 서울: 해바라기.
윤평중. (2008). 『극단의 시대에 중심잡기』. 서울: 생각의 나무.
이원규. (2000).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조선일보. 사설: '분노한 神과 '허약한 법치' (2017년 1월 17일자) 사설.
한국갤럽.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제4차 비교조사(2004년도 조사)』.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Ammerman, Nancy T. (1987). *Bible Believers: Fundamentalisms in the Modern World*.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Bellah, Robert N. (1967).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96: 1-21.
Berger, Peter L. (1967).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Garden City, N.Y.: Doubleday.
Beyer, Peter. (1994). *Religion and Globa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Breen, Michael. (2016). "In Korean Democracy, the People Are a Wrathful God," *Foreign Policy*, December 19.
Elliott, Charles. (1989). *Sword & Spirit: Christianity in a Divided World*. London: Marshall Pickering.
Haidt, Jonathan. 2012. *The Righteous Mind: Why Good People Are Divided by Poltitics and Religion*. New York: Pantheon Books.
Hunter, James. 1991.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Inoue, Nobutaka. (1997). "The Information Age and the Globalization of Religion." http://wwwz.kokugakuin.ac.jp/ijcc/wp/global/06inoue2.html. (2000-09-19).
Los Angeles Times. "Despite Scorn and Criticism, These Latino Voters Don't Regret Voting for Trump," January 17, 2017.
Luckmann, Thomas. (1967). *The Invisible Religion: The Problem of Religion in Modern Society*. New York: Macmillan.

Luhmann, Nicholas. (1982). *The Differentiation of Society*. S. Holmes and C. Larmore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tott, John. 2006.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4th edition.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Williams, Rhys H. (2003). "Religious Social Movements in the Public Sphere: Organization, Ideology, and Activism." In Michele Dillon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5-330.

Wuthnow, Robert and M. P. Lawson. (1994). "Sources of Christian Fundamentalism in the United States." In M. E. Marty and R. S. Appleby (eds.), *Accounting for Fundamentalism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8-56.

2017년 제1차 연구윤리강화 교육
(한국선교신학회)

강 사: 김칠성 교수(목원대학교)
날 짜: 2017년 2월 25일(토)
시 간: 오후 3:20-3:50(30분간)

I. 연구윤리 강화 교육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외)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3) “표절”은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부당한 논문저자/역자를 표시하는 행위
5) “중복게재”는 동일 논문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상 현저하게 유사한 논문을 중복해서 발표, 출간하는 행위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로 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2. 연구윤리 부정행위 자가점검 방법

1) 우리 학회 홈페이지 아래 링크된 copykiller에 접속하여, 논문의 표절율 점검해 봄(소속된 학교가 copykiller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 Lite를 이용하면 무료로 확인 가능)
2) copykiller에서 제공하는 자가 점검표로 자체 확인

Copy Killer

카피킬러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연구자용]

점검일자	

문서명			
작성자		소 속	
연구비		지원기관	

자가점검항목			결과	비고
위조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변조	2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표절	3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나의 창작물인 것처럼 그대로 활용하였는가?		
	4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출처를 일부에만 표시하였는가?		
	5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는가?		
	6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는가?		
	7	인용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하였는가?		
	8	[직접인용]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3줄 이내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면서도 인용부호(" ")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는가?		
	9	[직접인용]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3줄 이상의 문장을 글자체와 글씨크기를 달리하여 문단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는가?		
	10	[간접인용]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자신의 글 속에 인용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는가?		
	11	[재인용]1차 문헌을 인용한 2차 문헌을 인용하면서 1차 문헌을 직접 인용하는 것처럼 출처를 표시하였는가?		
부당한 저자 표시	1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1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는가?		
중복 게재	14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였는가?		
	15	자신의 이전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저작물을 작성하였는가?		
	16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에 새로운 연구결과를 추가해 저작물 목록을 부풀리는 행위를 하였는가?		

※ 1. 출처: 카피킬러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2016년 10월, ㈜루비페이퍼

2. ■ 색칠된 부분은 카피킬러 표절검사 프로그램에서 검사 가능한 항목임

© 2015 RUBYPU All rights reserved

Ⅱ. 연구윤리 사이버 교육 안내

*2시간 교육 후 3년간 유효한 수료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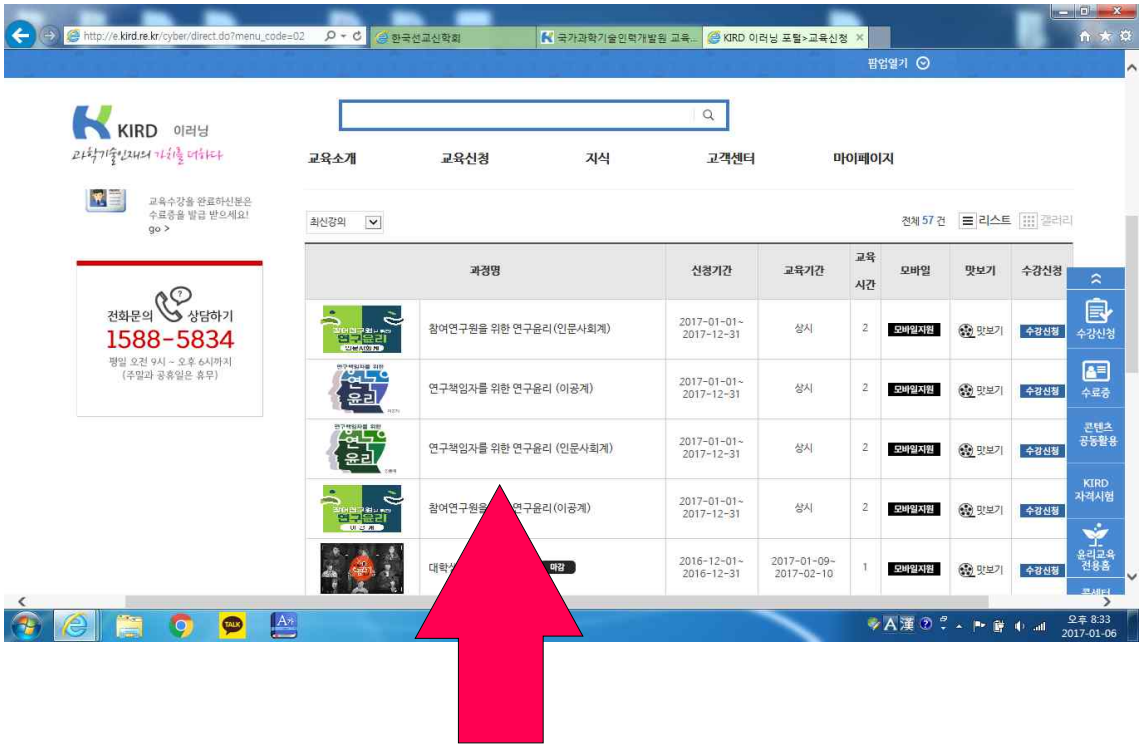
*발급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한국연구재단 인정)

1. www.kird.re.kr 접속해서 회원가입, 로그인하기
 #Google Chrome(크롬)을 통해 접속하기(추후 수료증 다운로드를 위해서)
 #우리학회 홈페이지 맨 아래 KIRD 클릭하면 직접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됨
2. “이러닝교육” 클릭
3. “수강신청” 클릭
4. “책임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클릭하고 강의 듣기(2시간)
5.수료증 발급받아, 편집장 김칠성 교수(skync1005@gmail.com)에게 보내기
 # 기술적인 문의사항은 1588-5834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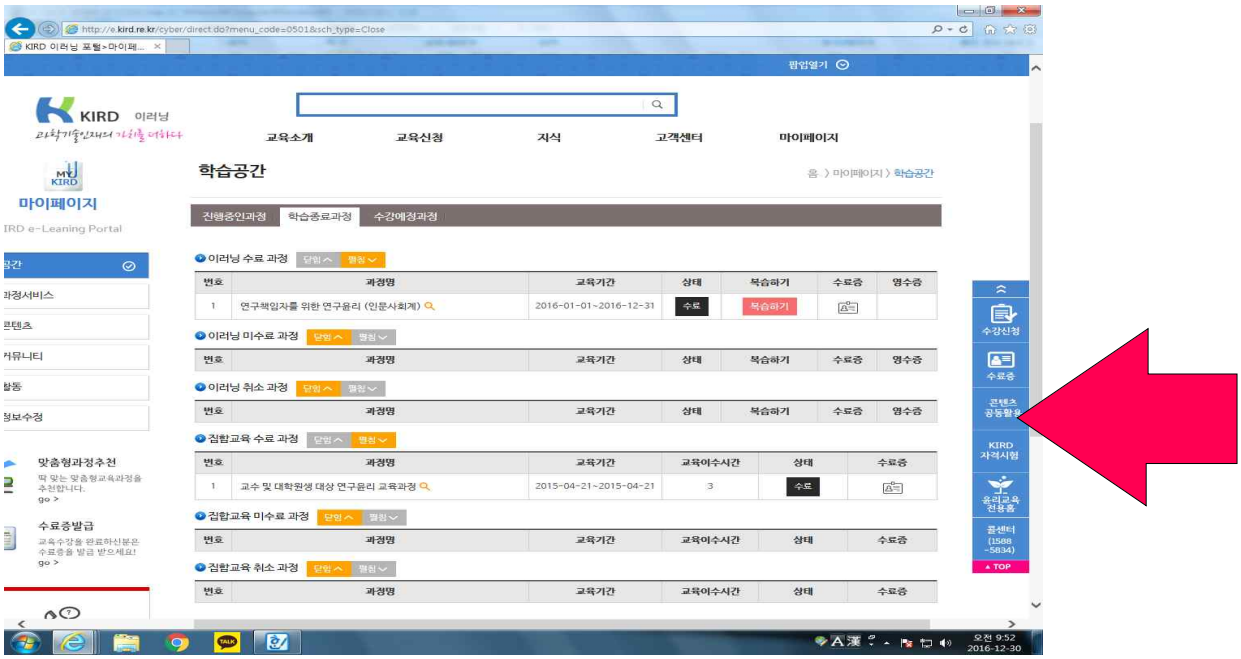
1. www.kird.re.kr 접속해서 회원가입, 로그인 하기, 이러닝교육 클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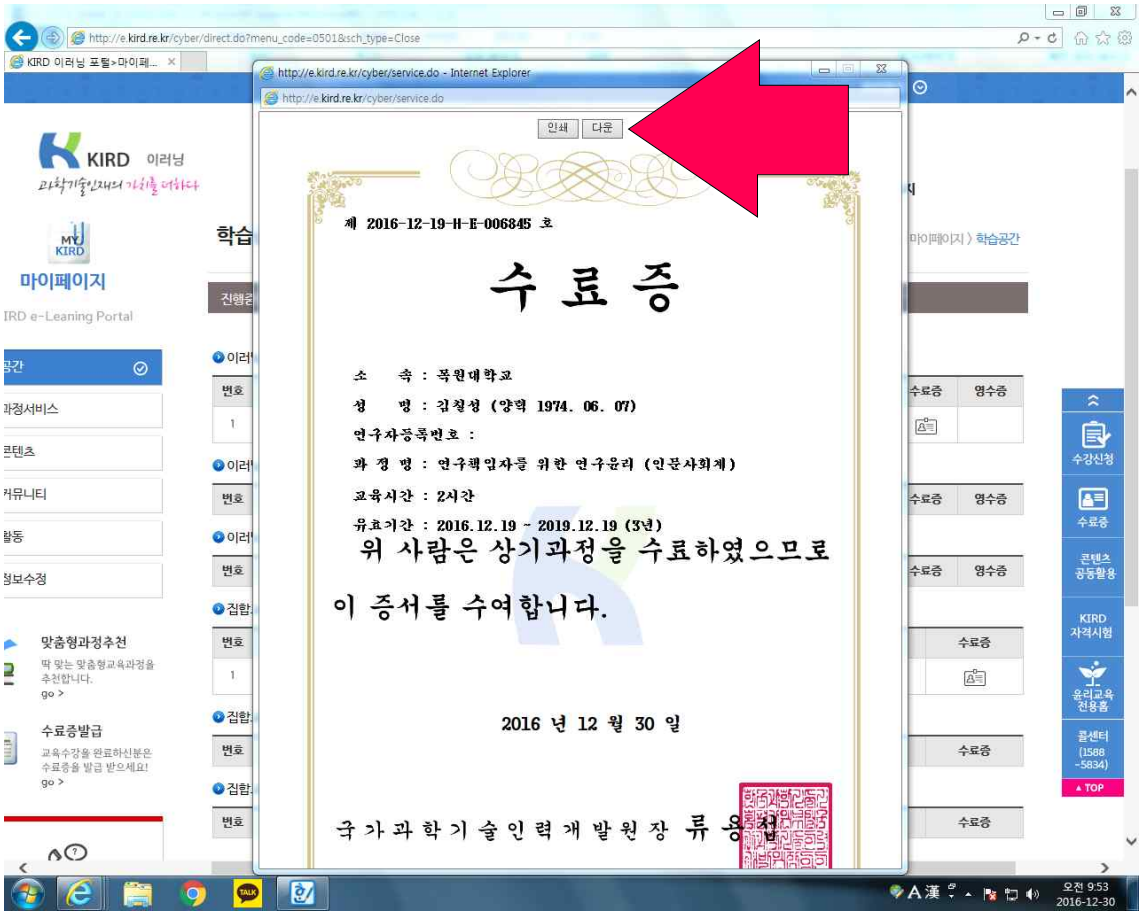
2. "수강신청" 클릭

3.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클릭하고 강의 듣기(2시간)



4. 수료증 다운받아, 편집장 김칠성 교수(skync1005@gmail.com)에게 보내기 (크롬 Chrome을 통해 접속해야 수료증 다운로드 하는데 용이함)





수료증 다운받으신 후 편집장 김칠성 교수(skync1005@gmail.com)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1588-5834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편집장 김칠성 교수(010-9385-9064)에게 연락바랍니다.

❖ 2017년 한국선교신학회 임원

회　　장 : 황홍렬(부산장신대)

1부회장 :　김상근(연세대)

2부회장 :　최동규(서울신대)

총　　무 : 정기묵(장신대)

편집장　: 김칠성(목원대)

서　　기 : 유근재(주안대)

감　　사 : 황병배(협성대)